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혁신을 논하다!

일시 : 2019. 6. 5. WED 12:30~17:45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주최 :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주관 :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혁신을 논하다!

일시 : 2019. 6. 5. WED 12:30~17:45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주최 :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주관 :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진로교육학회

개 회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3대 회장 이지연입니다. 저희 학회는 1993년 제1대 김충기 회장님과 함께 출발한지 올해로 26년이 되었으며 오늘 제48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항상 후배들을 챙기면서 진로교육 분야발전을 위하여 회초리와 격려를 주시는 역대 진로교육학회 회장님, 학교 현장의 진로전담교사,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진로교육 분야의 학자·연구자 등 여러분 모두의 지원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혁신을 논하다”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입니다. 학회의 나이만큼 26세 청년기까지 성장한 진로교육의 어제·오늘을 되돌아보고 낡은 것은 바꾸고 고쳐서 미래지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199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책연구소 중심의 연구 분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어, 1999년 교육부 진로정보사업을 계기로 커리어넷 웹사이트 운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 진로교육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가 신설되면서 국가교육정책의 주요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2012년 시작된 진로전담교사 정책은 오늘날 초·중등단계 일반학교를 넘어 특수교육에 이르기까지 배치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 시행, 진로교육법 제정, 지역과 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 등의 인프라와 제도 측면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양적으로 팽창된 인프라 만큼 이제는 진로교육 성과에 대한 질적 관리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학생들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까지 연계되는 진로체험으로, 모든 교사들의 진로교사화로, 일반교육·직업교육의 핵심요소인 진로교육으로, 초중등단계 중심에서 대학교

평생학습자를 향한 진로교육으로, 지역과 공공고용서비스 안에서도 학교와 함께 협업하는 진로교육으로, 그래서 전 생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으로, 그리고 장·단기적 증거 기반의 진로교육 성과평가를 기초한 진로교육정책개발로 이렇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질적 수월성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의 춘계학술대회는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인력, 관련 제도,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혁신 방안을 논하고 그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히, 48차 춘계학술대회를 위하여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前 진로교육학회장이시며, 서울대 교수이신 정철영 교수님께서서는 진로교육 분야에서 성과평가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론적 맥락과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세부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임은미 전북대 교수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님, 문승태 순천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진로교육 전문가님들, 사회와 좌장을 맡아주신 학회 임원진들께도 동일한 감사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이자 파트너로 진로교육 발전에 항상 동행하여 주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흥 원장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낯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혁신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하며 달려가야 하는지를 깊게 인식하고, 연구·정책적인 실천행동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 6. 5

한국진로교육학회 13대 회장 이지연(李智妍)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입니다.

오늘 한국진로교육학회가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혁신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48번째의 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 학술대회를 축하하고 격려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원장님,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홍 원장님, 성공적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한국진로교육학회 이지연 학회장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정철영 교수님,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진로교육학회가 1993년에 창립된 이후,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진로와 직업」 교과가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 왔고, 2011년 교육부에 진로교육정책과가 신설되었으며,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고,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발전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수업, 진로 체험 등 다양한 진로활동에 대한 참여가 빈번해 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학부모, 교사들의 진로교육 인식이 개선되었고 지역사회의 학생 진로체험 동참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계획(17.11.27), 전체 고등학교 대상 고교학점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는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중앙추진단을 출범하여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올해 직업계고학점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업계고 학점제 정책 연구와 컨설팅, 운영 성과 분석 및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학생 수 급감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한국진로교육학회의 48번째 추계학술대회는 그동안의 진로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로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진로교육 인력을 비롯하여 제도와 인프라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록의 계절에, 오늘 한국진로교육학회의 춘계학술대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영선**

축 사

한국진로교육학회의 제 48차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지연 학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술대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참석해 주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원장님과 한국고용정보원 이재홍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는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혁신을 논하다!'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괄목상대할 만큼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진로교육의 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진로교육 자체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진로교육학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혁신'을 학술대회 대주제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간의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성과평가와 혁신방안에 대해 기초강연을 맡아 주신 서울대학교 정철영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교수님은 한국진로교육학회의 제 8대와 9대 학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학회운영의 기틀을 잘 잡아주셔서 진로교육학회가 오늘에 이르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진로교육 인력의 혁신 방안을 발표해 주실 임은미 교수님,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관점에서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을 맡아주신 양정호교수님, 진로교육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실 문승태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으신 손은령교수님, 강혜영교수님, 강낙원소장님, 김동춘교장선생님, 장혜정 센터장님, 최경식 장학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교육이 지나칠 정도로 암기위주의 교육, 입시경쟁 교육에 함몰된 나머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토대를 둔 진로교육이 매우 신선해 보이기도 하였고, 우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의 핵심영역이자 내용의 큰 축인 일과 직업의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래사회에서는 현재의 대부분의 일과 직업이 사라지거나 바뀔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청소년재단(FYA)에서는 현재의 15세 청소년들은 평생 5개 직업군에서, 17개의 직업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이제 청소년에게 커서 뭐가 되겠냐고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명사형 질문 대신에 동사형 꿈을 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나 학생들, 학부모 모두 '알 수도 없고, 예측하기 힘든 미래 일과 직업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자칫하면 '진로교육 무용론' 까지 확대되면 어떡하나 하는 기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와 사회 상황이 오히려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더 역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성과를 성찰하고 새로운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Gig 경제(gig economy)와 플랫폼노동으로 인한 직장의 종말이 논의되고 있고, 프로젝트형 창의융합 활동과 메이커 활동, 자기주도적 경험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교육 전문인력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할 것인가, 진로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이나 제도, 그리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진로교육 혁신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학술행사를 준비해주신 이지연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송병국**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홍입니다.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원장님, 그리고 이처럼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지연 학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급속한 사회·환경적 변화 속에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개발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 심화 등의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진로교육의 대상 또한 점차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애 전 영역에서의 변화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질,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진로교육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갈수록 어두워지는 청년 고용시장에서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한 진로취업역량 강화 차원에서의 대학 진로교육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과 재취업 등 진로장벽 해소와 성인의 진로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체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이어져왔습니다. 특히 2015년 진로교육법을 토대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기반의 구축노력은 학교 진로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전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향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진로교육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요구될 것입니다. 평가의 진정한 목적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닌 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 진로교육 관련 인적자원, 그리고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실시와 운영을 위한 인프라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의미있는 피드백이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 대상의 창의적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고용정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허브센터를 개편하여, 청년 관련 정책 분석과 모니터링, 청년 관련 네트워크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청년 대상의 정책, 스터디 공간, 진로고민 등을 실시간으로 상담을 지원해주는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까지 청년들의 경력개발과 고용지원을 위한 정책허브 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 심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생애전반에 걸친 진로교육 활성화와 혁신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는 워렌버핏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또 이 자리를 메워줄 이들의 나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나무를 심고 큰 나무 그늘을 만들어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 준비를 위하여 힘써주신 많은 학회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로교육 분야에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5일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재흥

행 사 일 정

시간		발표 및 내용
12:30~13:00		【접 수】
제1부 (13:10~14:25)		사회 김은석 (한국진로교육학회 특별사업위원장, 한국고용정보원)
13:10~13:30	20'	【개회식】 개회사 이지연 (한국진로교육학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축 사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재홍 (한국고용정보원장)
13:30~14:10	40'	【기조강연】 진로교육의 성과평가와 혁신방안 강연자 : 정철영 (서울대학교 교수, 제 8,9대 한국진로교육학회장)
14:10~14:25	15'	휴 식
제2부 (14:25~17:25)		좌장 김기현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위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25~15:25	60'	【주제발표 1】 진로교육 인력의 혁신 방안 발표자 : 임은미 (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 : 손은령 (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 : 강혜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5:25~16:25	60'	【주제발표 2】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 방안: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자 :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토론 :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 토론 : 김동춘 (대전이문고등학교 교장)
16:25~17:25	60'	【주제발표 3】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 방안 발표자 : 문승태 (순천대학교 교수) • 토론 : 장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체험학습센터장) • 토론 : 최경식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제3부 (17:25~17:45)		
17:25~17:45	20'	【종합 토론】 좌장 :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17:45		【폐 회】

기조강연

진로교육의 성과평가와 혁신방안

정철영 (서울대학교 교수)

제48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초강연

진로교육의 성과평가와 혁신방안

정 철 영(서울대학교)

2019. 6. 5. (수)

13:30 - 14:10

목차

- 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 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
-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 V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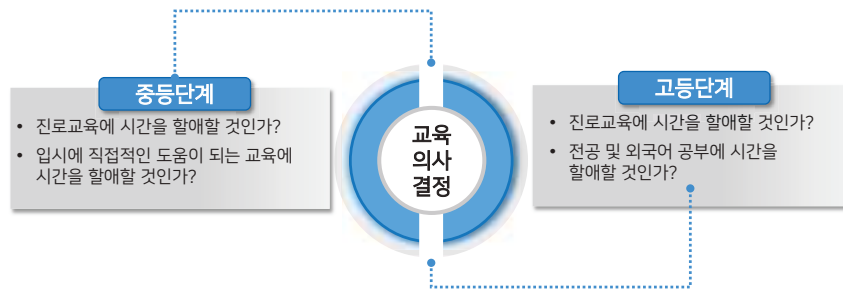
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중요성
2.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필요성

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중요성

교육 의사결정 기준으로써 진로교육 성과



진로교육에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입시 또는 전공 및 기타 교육에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며, 이는 진로교육의 성과 측면에서 판단됨.

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중요성

혁신의 목적으로서 진로교육 성과



진로교육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동안 연구들이 적절했고 타당했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

5

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2.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필요성

진로교육의 양적·질적 확대

✓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2018년 관계부처 합동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까지 진로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음.

2010년	• (2월)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 발표	2016년	• (3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4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 발표
2011년	• (3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신설 • (4월)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17년	• (2월) 국가진로교육센터 개소
2013년	• (2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5월)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 발표	2018년	• (1월) 2018 학교진로교육 추진계획 발표 • (10월) 2019 학교진로교육 추진계획 발표 • (11월) 관계부처 합동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2015년	• (6월) 진로교육법 공포 • (12월) 진로교육법 시행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필요성

진로교육 현황조사 한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 현황조사(정은진 외, 2018)는 개인의 학교 진로교육 및 학교생활 만족도, 진로개발역량 수준만을 측정하여, 진로교육 목표에 따른 다양한 성과를 파악하는데 제한적임 .
진로교육 성과평가 실시 및 홍보의 미흡	• 진로교육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며, 실천에 반영하는 시도는 제한적임 (정철영 외, 2015).
개인 수준의 즉각적 효과성 중심	• 다수의 연구들은 진로교육 참여자 개인 수준의 즉각적 효과성에 초점이 있어, 단기, 장기 성과 논의가 제한적임 .
종합적 성과평가 모형의 부재	• 진로교육에 투입된 자원 및 활동 전반을 고려하지 못하여, 진로교육 활동 개선에 의미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움 . 일부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의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는 결과 가 존재함(연구방법 문제).

6

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

1. 진로교육의 개념
2. 성과평가의 개념
3.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

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

1. 진로교육의 개념

협의의 관점(진로교육법, 20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광의의 관점(정철영, 2002, 2016)

개인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며, 선택한 진로를 위한 **계획수립과 준비**를 통하여 그 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진출한 분야에서 잘 **적응**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

진로교육 참여자의 전 생애를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진로교육 참여에서 진로설계까지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관점**과, 진로교육 선택 이후의 진출, 적응 및 발전과 같이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진로교육법에서는 **진로교육 활동**을 ① 진로수업, ② 진로심리검사, ③ 진로상담, ④ 진로정보 제공, ⑤ 진로체험, ⑥ 취업지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

2. 성과평가의 개념

가 성과 관련 용어

Performance (성과)

- 이루어낸 긍정적인 결실
- 달성한 정도
- 수행의 결과
-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행동의 결과

Output (산출)

- 생산량, 산출량 / 생산된 양

Outcome (결과)

- 기술적이나 사업적인 결과 / 어떤 행동이나 과정의 결과
- The final result of an activity or process

Result (결과)

- 행위나 인과관계의 결과

Effectiveness (효과성)

- Result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
- 목표 또는 의도한 결과의 달성 정도

Efficiency (효율성)

- 투입물(input) 대비 산출물(output)의 비율

9

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

2. 성과평가의 개념

나 성과 관련 용어의 관계

Performance vs. Output

- **Performance**: 목표대비, 의도한 것
- **Output**: 산출물 그 자체

Performance vs. Outcome

- **Performance**: ① 잘 할 수 있는 것에 중점
- KSA 중 Skill 강조
- 역량(competency)의 실행에 관한 목표대비 달성 정도
② 기업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쓰임
- **Outcome**: ① 잘 아는 것에 중점(知情意)
② 학습, 프로그램 등에서 쓰임(KSA 전체)

Performance vs. Efficiency

- **Performance**: 다각적 개념으로써, 산출을 넘어 결과, 영향, 효과성, 효율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김은영 외, 2016; 서영인 외, 2013)
- **Efficiency**: 투입 대비 산출 (서영인 외, 2013; 정택희, 2008)

Performance vs. Effectiveness

- **Performance**: 다각적 개념으로써, 산출을 넘어 결과, 영향, 효과성, 효율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김은영 외, 2016; 서영인 외, 2013)
- **Effectiveness**: 목표 또는 의도한 결과의 달성 여부 및 정도, 즉 목표 대비 결과 (서영인 외, 2013; 정택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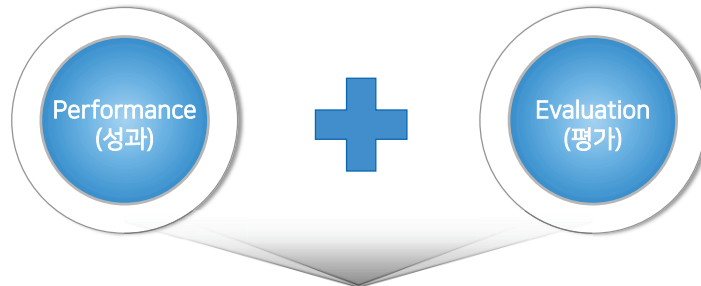
10

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

2. 성과평가의 개념

다 성과평가의 정의

- ✓ **평가**: 가치나 수준을 판단
- ✓ **성과평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중심으로 수행의 결과를 가치 판단



교육에 있어서 성과평가는 의사결정자에게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교육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제고함(배호순, 2008; 정재삼, 2004).

11

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

3.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

- ✓ **진로교육 성과평가**: 진로교육의 결과, 목표 달성 수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진로교육 성과평가는 **성과 수준**과 **평가 시점**에 따라 평가 가능”

구분	즉각적	단기적	장기적
개인 수준	• 학습 및 경험에 따른 개인의 역량 변화	• 희망 직업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 및 입직	• 직업적응 및 경력 성공
지역 및 국가 수준	-	• 노동시장 참여 및 생산성 향상	• 사회발전 및 경제성장

자료: 정철영, 이유우, 김태환, 최로미, 이승엽, 박신희, 박선영. (2019). 진로교육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 실태분석. 미출판논문 재구성.

12

Ⅲ.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1. 분석방법의 개요
2. 연구제목 실태
3. 연구대상 실태
4. 연구방법 실태
5. 성과평가에 활용된 진로교육 활동 변인 실태
6. 성과평가에 활용된 진로교육 성과 변인 실태

자료: 정철영, 이유우, 김태환, 최로미, 이승엽, 박신희, 박선영. (2019). 진로교육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 실태분석. 미출판논문 재구성.

Ⅲ.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1. 분석방법의 개요

가 분석대상

- ✓ 초·중·고·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활동의 성과를 분석한 **국·내외 논문 98편**

기간

-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DB

-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Web of Science, EBSCO의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주제어

- '진로교육', '진로지도',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검사', 'career education', 'career guidance', 'career counseling', 'career program' 중 초·중·고 대학생 진로교육 활동의 성과 관련 연구

논문 수

- 수집된 논문의 초록을 검토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진 진로교육 활동에 따른 성과에 초점을 둔 논문 선별
- **총 98편의 논문(국내 연구 65개, 국외 연구 3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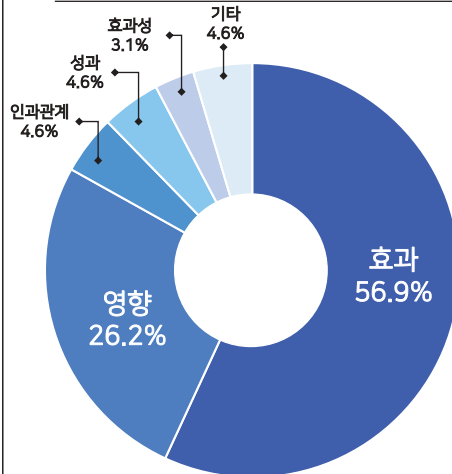
14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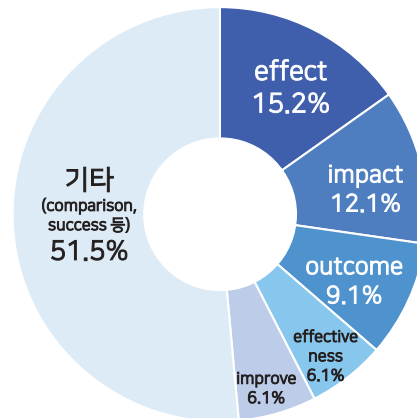
2. 연구제목 실태

- ✓ 진로교육의 성과를 표현하는 용어로 국내 연구는 주로 '효과', '영향'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국외 연구는 '효과(effect)'와 '영향(impact)' 이외에도 다양한 용어를 활용하고 있었음.

국내 연구제목(65개)



국외 연구제목(3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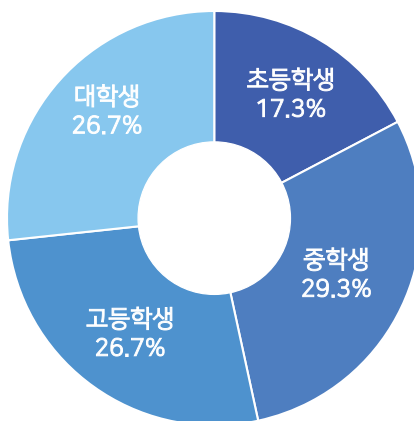
15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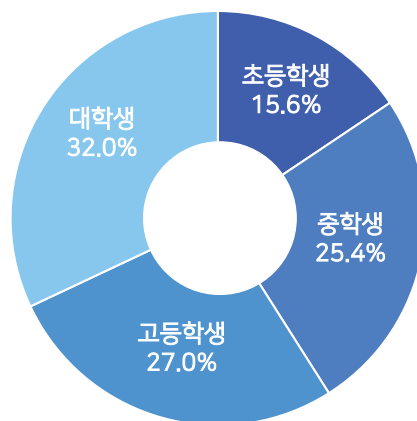
3. 연구대상 실태

- ✓ 국내 연구는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연구대상 비율이 높았지만,
국외 연구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연구대상 비율이 높았음.

국내 연구대상(65개)



국외 연구대상(33개)



16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4. 연구방법 실태

- ✓ 국내 연구는 조사연구(44.6%)와 실험연구(47.7%)의 비율이 비슷하였지만, 국외 연구는 실험연구(81.8%)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연구방법			국내	국외	계
문헌연구	메타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5(7.7)	3(9.1)	8(8.2)
조사연구	종단		7(10.8)	2(6.1)	9(9.2)
	횡단		22(33.8)	1(3.0)	23(23.5)
	합계		29(44.6)	3(9.1)	32(32.7)
실험연구	단일집단	사전-사후	4(6.2)	5(15.2)	9(9.2)
		사전-사후-추후	1(1.5)	1(3.0)	2(2.0)
	통제집단	사후	0(0.0)	3(9.1)	3(3.1)
		사전-사후	20(30.8)	14(42.4)	34(34.7)
		사전-사후-추후	1(1.5)	1(3.0)	2(2.0)
	비교집단	사전-사후	2(3.1)	3(9.1)	5(5.1)
		사전-사후-추후	1(1.5)	0(0.0)	1(1.0)
	비교-통제집단	사전-사후	2(3.1)	0(0.0)	2(2.0)
		합계	31(47.7)	27(81.8)	58(59.2)
	총계		65(100.0)	33(100.0)	98(100.0)

17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5. 성과평가에 활용된 진로교육 활동 변인 실태

- ✓ 진로교육 성과평가에 활용된 국내·외 주요 진로교육 활동은 진로수업,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취업지원, 진로정보 제공이었음.

구분	국내	국외
진로수업	- 교과통합 진로교육 수업 - 진로 교과 수업	- 웹-기반 프로그램 - 진로 교과 수업
진로체험	- 지역사회 기반 직업체험 -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	- 강연 - 프레젠테이션 워크숍¹⁾
진로상담	진로집단상담	- 멘토링 - 온라인 진로상담 - 생애 설계 상담 - 진로집단상담
진로심리검사	- 직업적성검사 - 진로탐색검사	- 흥미검사 - Holland 심리검사
취업지원	-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 - 취업교육목 - 취업컨설팅 - 취업특강	직업상담서비스
진로정보 제공	- 개인에 대한 정보 -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 직업에 대한 정보	- 직업카드로 제공되는 진로정보 - 진로 개입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진로정보 - 진로수업 내에서 제공되는 진로정보 - 진로상담 내에서 제공되는 진로정보 - Holland의 직업선택이론을 활용한 진로정보
기타	창의적 체험활동	-

주 1) 프레젠테이션이 제공되는 워크숍(1시간 소요)을 진로체험으로 분류하였으며,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실험집단과 프레젠테이션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성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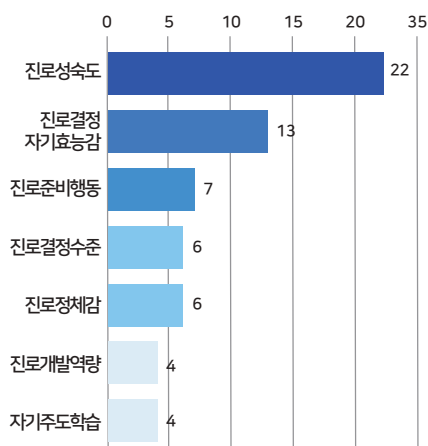
18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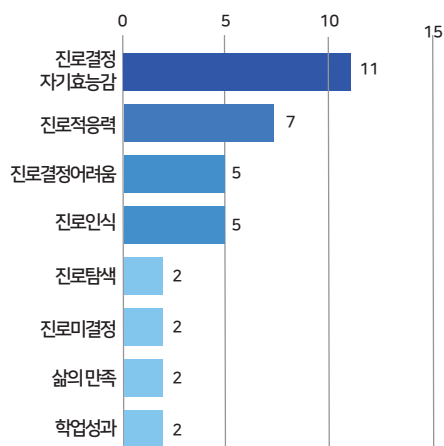
6. 성과평가에 활용된 진로교육 성과 변인 실태

- ✓ 국내 연구는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국외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력, 진로결정어려움 및 진로인식 순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국내 진로교육 성과 주요 변인 빈도(상위 7개)



국외 진로교육 성과 주요 변인 빈도(상위 8개)



19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6. 성과평가에 활용된 진로교육 성과 변인 실태

가 연구대상별 진로교육 성과 변인

- ✓ 국내 연구 중 모든 대상에서 활용된 성과 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이었고 국외 연구 중 모든 대상에서 활용된 성과 변인은 진로적응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었음.

국내 연구대상별 진로교육 성과 주요 변인

구분	주요 변인
초등학생	사회성, 진로발달 등
중학생	인성, 행복, 자기주도학습 등
고등학생	진로결정수준, 취업목표인식, 취업준비행동 등
대학생	직장만족도, 임금 등

국외 연구대상별 진로교육 성과 주요 변인

구분	주요 변인
초등학생	결과기대, 진로적응력
중학생	진로인식, 진로확신 등
고등학생	정서지능, 진로결정 어려움, 포부 등
대학생	노동시장 참여, 사회적 자본,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등

20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6. 성과평가에 활용된 진로교육 성과 변인 실태

나 성과 수준과 평가 시점 별 진로교육 성과 변인

- ✓ 국내 연구는 개인 수준의 성과 변인에 국한되어 성과평가가 수행된 반면, 국외 연구는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성과 변인에 대한 성과평가가 수행되고 있었음.

국내	대상	측각적	단기적	장기적		
	개인	• 사회성 • 삶의 만족도 • 성취동기 • 셀프리더십 • 인성 • 자기주도학습 • 자아개념 • 자아존중감 • 직업기초능력	• 진로개발역량 • 진로결정수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발달 • 진로성숙도 • 진로신념 • 진로의사결정능력 • 진로인식 • 진로장벽	• 진로정체감 • 진로준비행동 • 창의성 • 취업역량 • 취업목표인식 • 취업효능감 • 학교만족도 • 학습동기 • 학업성취도 • 행복도	• 대학생활적응 • 대학전공 일치 여부 • 취업여부 • 취업목표달성 • 학과 재선택의지	• 고용형태 • 직무만족도 • 임금 • 직장만족도 • 취업만족도
	지역 및 국가	-	-	-		

국외	대상	측각적	단기적	장기적		
	개인	• 건강증진 • 결과기대 • 대학진학 자기효능감 • 동료 • 목표선택 • 부정적 진로 사고 • 사회적 자본 • 삶의 만족 • STEM 자기효능감 • 실무 소질 성과 • 자기효능감	• 정서지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상태 • 진로결정 어려움 • 진로적응력 • 직업정체성 • 진로이탈성 • 진로 선택 만족 • 진로 선택 확신 • 진로의사결정 • 진로인식	• 진로장벽 • 진로 탐색 • 진로탐색행동 • 진로 행동 • 진로확신 • 카운슬링 찾기 • 통제소재 • 포부 • 학업성과 • 흥미 • 희망	• 노동시장 참여 • 인지된 고용가능성 • 직업명확성 •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 직업몰입
	지역 및 국가	-	• 노동시장 유연성 • 실업률 감소 • 진학률	• 세수 증가 • 범죄율 감소 • 비용 편익 감소 • 경제성장		

21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6. 성과평가에 활용된 진로교육 성과 변인 실태

다 분석결과별 진로교육 성과 변인

- ✓ 국내·외 연구 모두 진로교육 활동에 따라 성과 변인의 대부분이 향상되었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성과 변인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음.

국내

구분	성과 수준	측각적			단기적	장기적
개인	향상	• 사회성 • 삶의 만족 • 성취동기 • 셀프리더십 • 인성 • 자기주도학습 • 자아개념 • 자아존중감 • 직업기초능력	• 진로개발역량 • 진로결정수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발달 • 진로성숙도 • 진로신념 • 진로의사결정능력 • 진로인식 • 진로장벽	• 진로정체감 • 진로준비행동 • 창의성 • 체득역량 • 취업목표인식 • 취업효능감 • 학교만족도 • 학습동기 • 학습성취도 • 행복	• 대학생활적응 • 대학전공 일치 여부 • 취업여부 • 취업목표달성	• 고용형태 • 임금 • 직장만족도 • 직무만족도
	변화 없음	• 자기주도학습 • 진로개발역량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성숙도	• 진로인식 • 창의성	• 대학생활적응 • 취업목표달성 • 학과 재선택의지	• 직장만족도 • 직무만족도
	감소	-	-	-	-	• 취업만족도

주) 국내의 경우, 지역 및 국가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 변인이 확인되지 않아, 표에서 삭제함.

22

III.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국내·외 연구실태

6. 성과평가에 활용된 진로교육 성과 변인 실태

다 분석결과별 진로교육 성과 변인

국외

구분	성과 수준	즉각적			단기적	장기적
개인	향상	- 건강증진 - 결과기대 - 대학진학 자기효능감 - 등록 - 목표선택 - 사회적 자본 - 삶의 만족 - 실무 스킬 성과	- 자기효능감 - 정서지능 - 직업정체성 - 직로탐색 - 진로결정 어려움 - 진로결정상태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의사결정	- 진로인식 - 진로탐색행동 - 진로확신 - 카운슬링 찾기 - 포부 - 학업성과 - 흥미 - STEM 자기효능감	- 노동시장 참여 - 인지된 고용가능성 - 직업명확성 -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
	변화 없음	- 부정적 진로 사고 - 진로적응력	- 통제소재 - 희망		-	직업몰입
	감소		-			-
지역 및 국가	향상		-		- 노동시장 유연성 - 실업률 감소 - 진학률	- 세수 증가 - 비용 편익 감소 - 경제성장

23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1.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과정 고찰
2.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준거 고찰
3.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도출

자료: 정철영, 임정훈, 김태환, 임한려, 임소현, 이영광. (2019). 진로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개념적 모형 개발. 미출판논문 재구성.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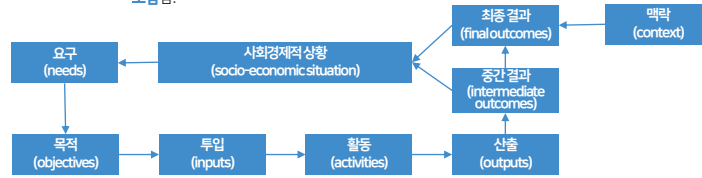
1.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과정 고찰

가. 성과평가모형으로써 논리모형

- ✓ 논리모형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적 상황부터 결과까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단계의 변화 과정 속에서 진로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것 필요

논리모형
(logic model)

- ✓ 성과평가모형으로써, **논리모형(logic model)**, **BSC(balanced score card) 모형**, **혼합모형**이 활용되고 있음.
- ✓ 논리모형이란 투입부터 활동을 거쳐 산출이 나오는 과정을 제시하여 그 산출이 영향을 미친 결과를 **'일의 논리 순서'**에 따라 추적하는 방식으로써, **핵심 요인은 투입, 활동, 산출, 결과**임.
- ✓ 논리모형은 다음과 같은 **장점** 덕분에 성과평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 첫째,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임.
 - 둘째, 과정별로 수집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평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음.
 - 셋째,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계획 또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계획을 밝혀냄으로써 **프로그램 설계 또는 향상에 도움**을 줌.
 - 넷째, 대부분의 성과평가모형에서는 산출까지만 관심을 가졌던 반면, 논리모형에서는 **산출 이후의 결과를 평가 영역에 포함**함.



자료: 김은영, 최정음, 박성호, 김혜지, 김혜정. (2016).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재구성.
주) OECD(2016) 고등교육시스템 성과모형은 성과 단계와 성과 영역(적합성, 경제성, 효과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성과 단계만을 제시하였음.

25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1.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과정 고찰

나. 시간에 따른 진로교육 성과 구분

- ✓ 시간의 구분에 따라 진로교육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 바와 같이, 진로교육 성과는 **시간에 따라 즉각적 성과, 단기적 성과, 장기적 성과**로 구분 가능

	개인 수준	지역 및 국가 수준
즉각적 성과	• 태도와 지식 변화(Watts, 2006) • 진로개발역량의 향상(교육부, 2015; 김현순, 2018; 서유정 외, 2017; 임효신, 2015; 정은이, 2015; 정재원, 2015; 정지은, 2017; 전민재, 2019; 진성희, 성은모, 2017)	
단기적 성과	• 희망하는 직업 분야를 잠정적으로 선택(Maguire, 2004) • 교육 훈련 참여 및 일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역량 배양(Hooley, 2014; Hughes et al., 2002) • 최종 선택한 직업 세계로 진출(Watts, 2006; Hughes et al., 2002)	• 노동시장 활성화(Access Economics, 2006; Hooley, 2014; Hooley & Dodd, 2015; Hughes et al., 2016) • 지역 및 국가 생산성 향상(Hooley, 2004; Hughes et al., 2016; OECD, 2004)
장기적 성과	• 진출한 분야에서 적응 및 경력 유지(Herr, 2002) • 계속 발전을 통한 경력성공 및 경력 전환(Maguire, 2004; Herr, 2002)	• 계층 이동성 강화(Hooley & Dodd, 2015; Hughes et al., 2016) • 지역 및 국가치원의 경제 활성화(Access Economics, 2006; Hooley & Dodd, 2015)

26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2.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준거 고찰

가 진로교육 성과평가 준거 선행연구 종합

- ✓ 개인적 수준의 즉각적 결과를 넘어서는 **다양한 수준(교육, 고용, 경제, 사회)**으로 **진로교육의 성과**를 제시한 선행연구 종합

구분		① Access Economics (2006)	② Hooley (2014)	③ Hooley & Dodd (2015)	④ Hughes et al. (2016)
교육 성과	진로개발(관리)역량 증가		●		●
	교육훈련 참여		●		●
	성취율/수준 증가		●		●
	교육기회 확보		●		
	평생교육 참여				●
고용 및 경제적 성과	원활한 직업세계 이행				●
	노동시장 활성화	●	●	●	●
	실업 감소	●		●	●
	고용 유지		●		●
	직무능력 향상	●		●	●
	생산성 증가	●	●	●	
	급여 증가		●		●
	노동시장 유연화			●	
	건강 증진			●	●
	세입 증가/세출 감소			●	
	편익 비용 감소		●	●	
	삶의 질 개선			●	
	경제 성장			●	
사회적 성과	범죄 감소		●	●	●
	사회 계층 이동성 증대		●		●
	공동체 수용력 증대		●		●
	문화 자본 증대				●

자료: ① Access Economics, (2006), The economic benefits of career development services, Victoria: The Career Industry Council of Australia.
 ② Hooley, T. (2014), The evidence base on lifelong guidance, JY: European Lifelong Guidance Policy Network.
 ③ Hooley, T., & Dodd, V. (2015), The Economic Benefits of Career Guidance, London: Careers England.
 ④ Hughes, D., Mann, A., Barnes, S.-A., Baldauf, B., & McKeown, R. (2016), Careers education :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 London: 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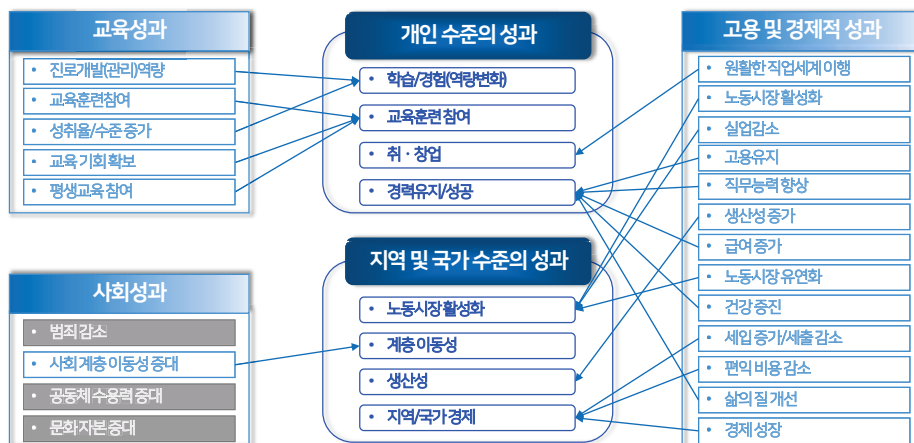
27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2.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준거 고찰

나 진로교육 성과평가 준거 도출

-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진로교육의 성과를 평가의 준거로 정의하여 재구분한 결과 평가 준거는 **개인 수준의 성과**와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성과**로 구분 가능



주: 사회적 성과의 '범죄 감소', '공동체 수용력 증대', '문화자본 증대'는 장기적 시점에서 진로교육의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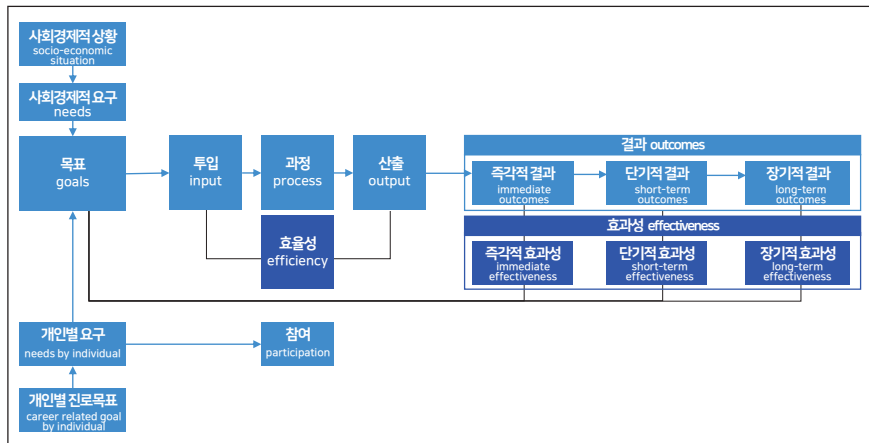
28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3.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도출

가 진로교육 과정별 성과

- ✓ **효율성**: 진로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 대비 산출(예: 진로전담교사 1인의 연간 상담자 수 등)
- ✓ **효과성**: 목표대비 결과달성 수준으로써, 결과의 발생 및 평가 시점에 따라 **즉각적(immediate)**, **단기적(short-term)**, **장기적(long-term)** 효과성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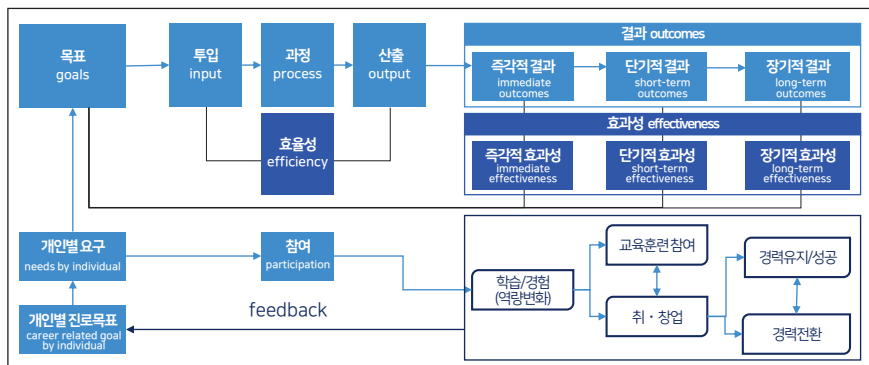
29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3.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도출

나 개인 수준의 성과

- ✓ **즉각적 효과성**: 학습 및 경험을 통한 즉각적 역량 변화
- ✓ **단기적 효과성**: 희망 직업분야 진출 시기까지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참여 및 실제 취·창업 여부
- ✓ **장기적 효과성**: 희망 직업분야 진출 이후 나타나는 경력 유지, 승진, 급여 상승, 만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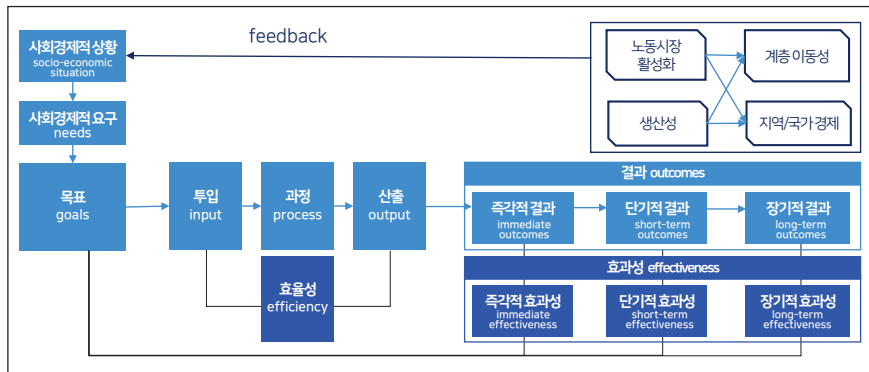
30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3.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도출

다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성과

- ✓ 단기적 효과성: 진로개발역량 및 교육훈련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 ✓ 장기적 효과성: 노동시장 참여 및 생산성을 촉진함으로써 계층 이동성 및 지역/국가 경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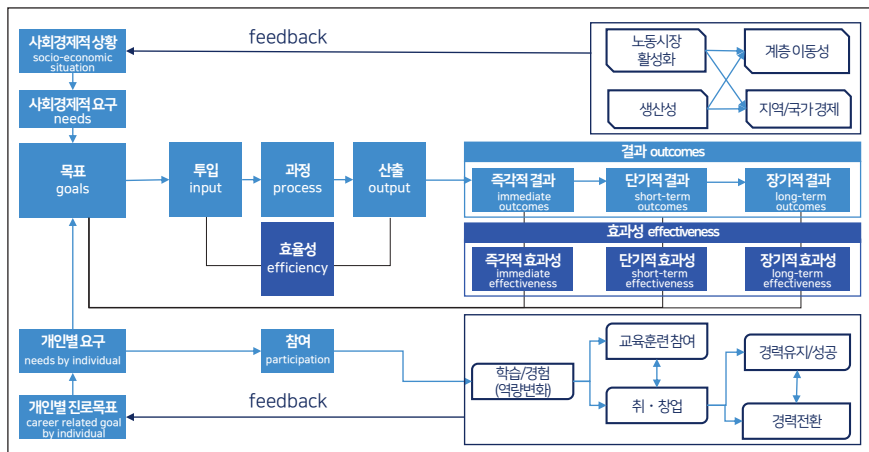
31

IV.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3.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도출

라 종합 모형

- ✓ 진로교육의 과정별 성과, 개인 수준의 성과,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성과를 종합한 종합 모형은 다음과 같음.



32

V. 결론 및 제언

01. 진로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평가 준거, 평가 요소, 평가 지표, 문항 및 도구** 개발 필요
02. 연구 방법에 있어서 **실험연구와 조사연구**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와 함께, **양적 연구** 보완을 위한 **질적 연구** 및 개념적 모형 검증을 위한 **종단 연구** 필요
03. 진로교육 성과의 **수준과 시점**에 대한 정립 필요
 - ✓ 개인 수준과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성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로교육 성과 정립 필요
 - ✓ 평가 시점에 따라 즉각적·단기적·장기적 성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로교육 성과 정립 필요
04. **진로교육 활동의 성과평가와 함께 진로교육 정책 자체 및 진로교육기관의 성과를 평가** 하는 연구 수행 필요
 - ✓ 특히, 정책 수립부터 정책 집행, 정책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및 입안된 진로교육 정책에 따라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 마련 필요
05.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연구대상 확대** 필요
 - ✓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진로교육 성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할 목적으로 연구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진로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니트족 혹은 입직 초기의 청년은 물론 중장년, 노년까지의 연구대상 확대 필요

06. 생애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개념적 모형 개발 필요

- ✓ 이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성과평가와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Access Economics, 2006; Hooley, 2014; Hooley & Dodd, 2015; Hugh et al., 2016), 진로교육 활동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진로교육 성과평가의 개념적 모형 도출
- ✓ 도출된 개념적 모형에 따라 생애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성과평가 모형개발 및 진로교육의 즉각적, 단기적, 장기적 성과평가 실시

07. 진로교육의 성과평가를 종합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널리 홍보

- ✓ 산출(output) 중심의 성과평가를 넘어, 진로교육의 다양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로교육 성과평가 실시 필요
- ✓ 일회적인 성과평가를 넘어, 지속적인 진로교육 성과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것 필요

35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1

진로교육 인력 혁신방안 - 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임은미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Bizforms www.bizforms.co.kr	
목차	
01. 진로교육 인력 양성 방안	02. 진로교육의 조직
- 학부에서 시작	- 촉진자와 수혜자
- 전체 (예비)교사 대상	- 진로교육 인력 조직
	- 진로교육 수혜자
03. 진로교육 인력별 역할	04.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 진로전담교사	- 진로전담교사의 역량과 교육
- 교과교사	- 진로교육 기본방향의 성취
- 담임교사	- 평생학습과 생애주도자 양성

01

진로교육 인력 양성 방안

- 학부에서 시작
- 전체 (예비) 교사 대상

진로교육 인력 양성의 기본 방향

- 전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학부교육에서
시작

- 교원 연수 병행
- 교육대학원 부전공 병행

모든 예비교사
에게 적용

- '진로직업 상담학과(가칭)'
- 교직과목
- 교과교육학과의 전공과목

학부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

- 변화하는 산업구조, 변화하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속에서 진로와 직업의 위치변화

- '진로'와 '직업'의 이슈는 개인의 전생애와 함께 함
- '직업'은 일회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직업들'로 존재
- 직업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전생애적 삶의 과정 중 만나는 중요 지점들 중 하나

직업세계의 항구성을 가정한 이론

- 특성 요인이론, Holland 성격이론, 진로발달이론, 관계적 진로상담, 제한 타협이론, 진로의사결정이론, 사회학습이론
- 개인의 적응력 증진이 진로교육의 주요 역할

변화하는 세계와 인구변화 포함

- 유연학습이론
- 진로무질서이론
- 구성주의 진로이론
- 체계적 진로이론

학부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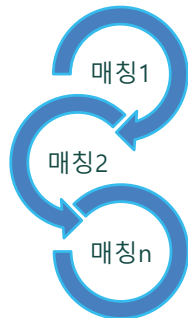
- 삶은 최적의 매칭의 연속으로 짜여지는 직물, 직조과정을 도울 수 있는 인재 필요

-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
- 저출산
- 고령화

학습자의 변화

- 직업적응행동
- 구직행동
- 구직준비
- 생활양식
- 사고방식 변화

- 대인관계
- 가족관계
- 가족의 형성



- 삶은 매칭의 연속 이전 매칭의 노하우 활용여부가
- 이후 매칭의 성공률을 높임

학부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

- 진로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좌절을 즐기도록, 함께 파도를 타도록

- 잘 교육받은 교육자가 내려주는 선택을 순조롭게 따라오도록 설득하는 것
- 잘 된 매칭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

- 세상을 모르는 서툰 학생이 시행착오를 '하도록' 도와야 함
- 변화의 흐름 속에서 좌절하더라도 다시 파도를 타도록 용기를 주는 것
- 학습자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현재 위치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

- 파도타기를 동시대 사회구성원과 함께 하도록
- 서로 격려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 사회통합을 위해

진로교육인력의 구성과 활용

- 전 교원의 참여, 전 학생이 수혜자가 되도록

- 전 교원이 참여해야 가능
- 진로전담교사
 - 담임교사
 - 교과교사
 - 비교과 교사

- 전 학생이 수혜자
- 진로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 전체 학년
 - 남학생 여학생
 - 특권을 누리는 학생
 - 소외된 학생, 무기력한 학생 등

- 교사에게 최신이론을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한가
- 단편적인 기술들을 전수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 진로교육인력의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가능한가
- 그것만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변화하는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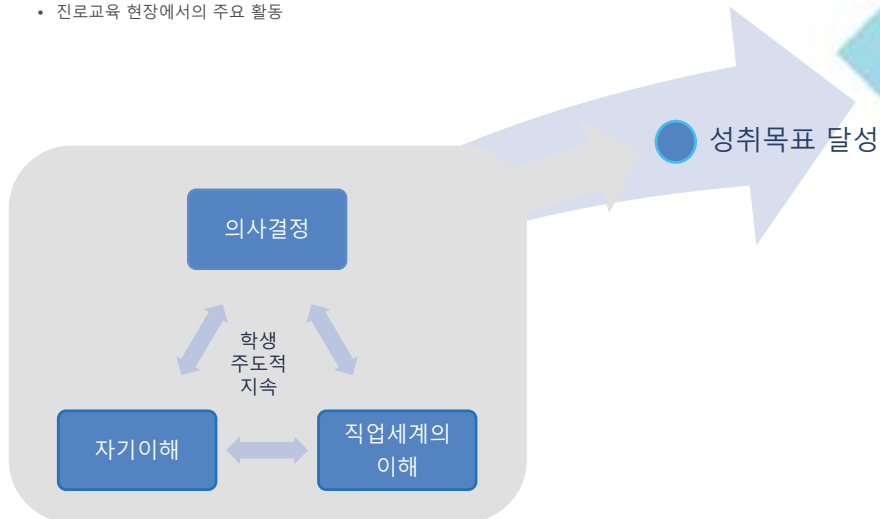
02

진로교육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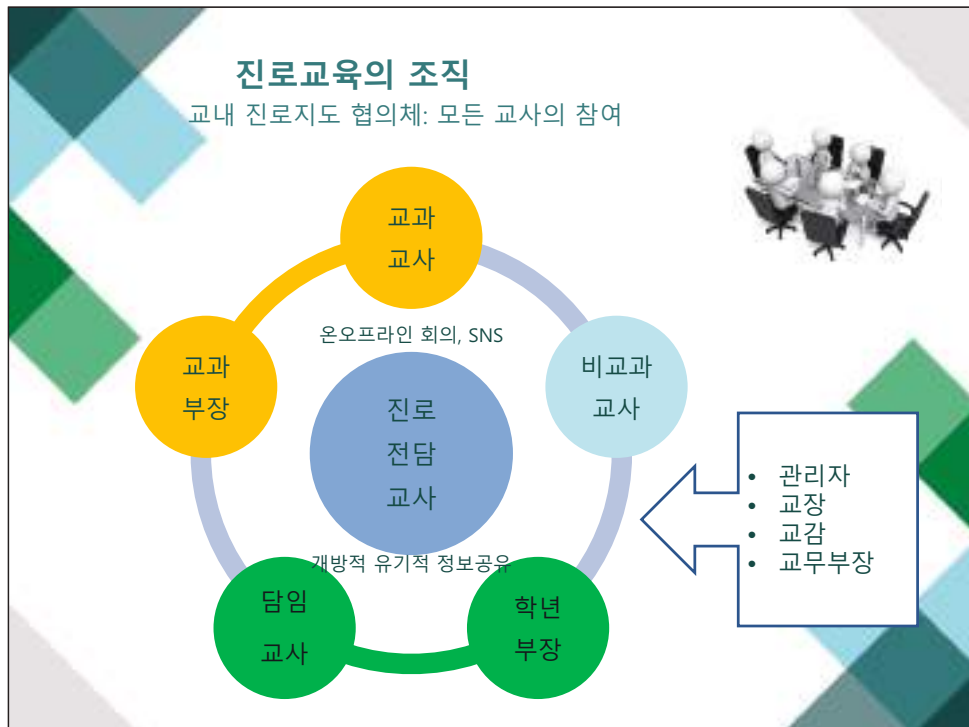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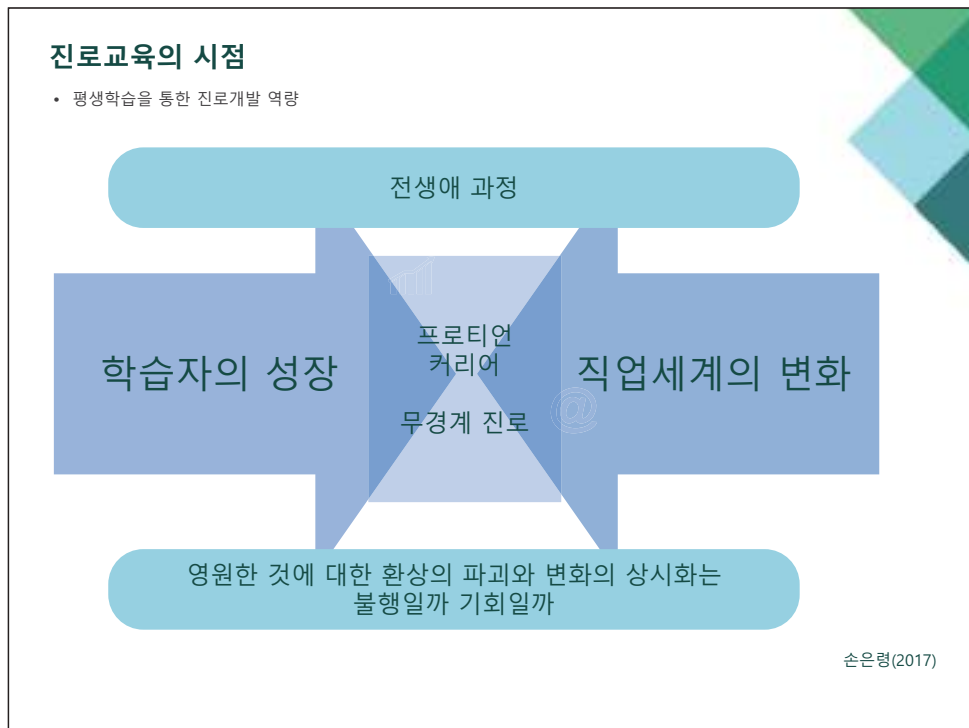
- 촉진자와 수혜자
- 진로교육인력 조직
- 진로교육 수혜자

진로교육 인력의 주요활동과 목표

- 진로교육 현장에서의 주요 활동



임은미 외(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진로교육인력이 할 일

- 진로교육법(2015) 제 2조(정의)



Bizforms
www.bizforms.co.kr

진로교육의 대상

모든 아동 청소년이 진로교육의 수혜자가 되도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빈곤
- 장애
- 붕괴가족
- 인종/민족 다문화
- 종교적 소수민
- 성, 성적 정향
- 트라우마
- 무기력한 아동 청소년 등

- D'Andrea, & Daniels (2001).

진로교육인력 양성제도의 장점과 한계

- 교사의 역량 관점에서

연수과정(2010년)

570시간 부전공 연수
통계, 하계, 학기 중
1년

부전공 연수

지식 전달 가능

대단위 집체 교육
강사-수강생 관계의 지속성: 약
과제 제시 및 제출의 강제성: 약
토론 및 실습수업 가능성: 약
교과 경력 교사 대상

교육대학원(2017년)

전공 30학점
(아간제/계절제)
5학기 또는 6학기

부전공 석사 학위

지식과 기술 전달 가능

소단위 집체 교육
강사-수강생 관계의 지속성: 보통
과제 제시 및 제출의 강제성: 보통
토론 및 실습수업 가능성: 보통
교과 경력 교사 대상

학부에 개설(안)

교양 29, 전공 71
교직 22 졸업 150

진로직업 상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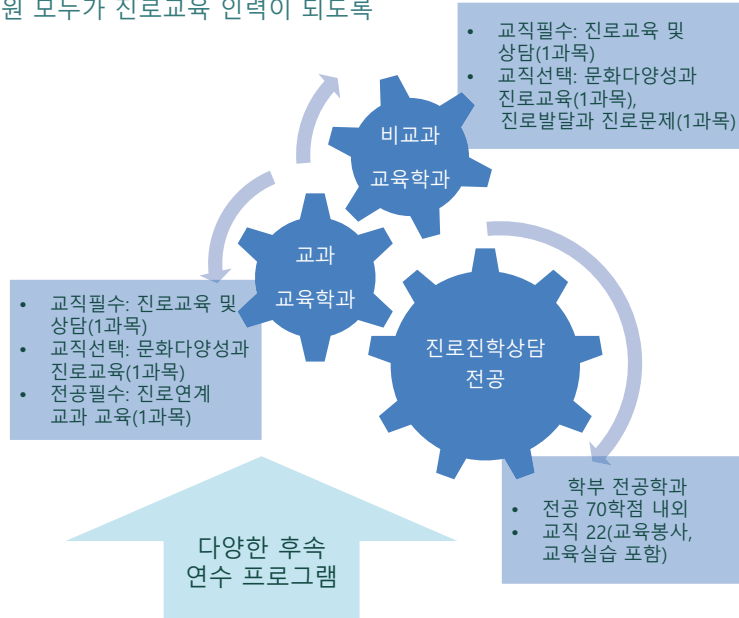
지식, 기술, 태도 변화 가능

소단위 집체 교육
강사-수강생 관계의 지속성: 강
과제 제시 및 제출의 강제성: 강
토론 및 실습수업 가능성: 강
예비교사 대상

Bizforms
www.bizforms.co.kr

진로교육인력 양성방안: 예비교사 교육과정

교원 모두가 진로교육 인력이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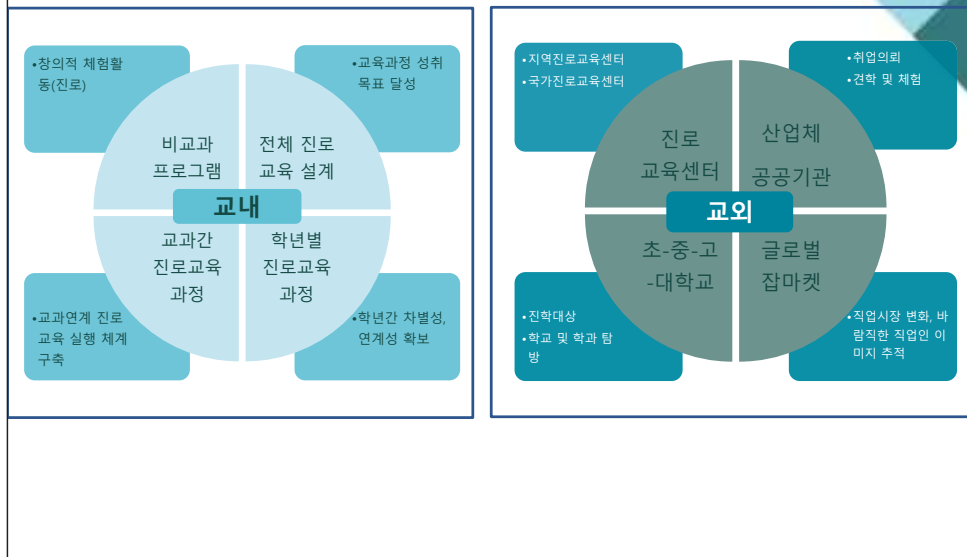
2019 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 인력 혁신방안

03

진로교육 인력별 역할

- 진로전담교사
- 교과교사/비교과 교사
- 탐임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 직접 수행 또는 수행체계 구축

- Facilitator/Supporter: 진로관련 교과지도, 학생진로문제 심층상담 및 입학사정간 전형 준비지원
- Coordinator/Mediator: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 및 학생진로문제 중재
- Manager: 학교진로교육업무총괄

이종범 외(2010)

01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

- 진로와 직업
- 교과과정과의 연계 고려
-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진로체험활동 기획 실시 평가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기획 실행

02

진로상담

- 진로심리검사 선정, 실시, 해석
-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개인상담, 소집단 상담
- 상담기록 및 평가
- 학생 보호자 의견 청취 및 반영

03

협력체계 허브

- 교내: 교과교사 담임교사 관리자
- 학생과 학부모
- 상급학교, 학과
- 산업체와 공공기관
- 글로벌 잡마켓
- 지역진로교육센터
- 국가 진로교육센터

Bizforms
www.bizforms.co.kr

진로전담교사의 위치

- 진로교육 전달체계 내에서



교과부장과 교과교사의 역할

교과부장



- 해당학년 진로교육의 성취목표 수립
- 교육과정 설계에 진로와 직업 반영
- 교과연계 진로교육 과정 설계

교과교사



- 교과연계 진로교육 실시
- 교과별 성취목표 달성 정도 평가
- 후속 진로지도 계획 수립에 반영
- 소외계층 학생의 성장에 관심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의 역할

학년부장



- 학년별 진로교육 성취목표 설정
- 담임 교사와 공유
- 실행과정 조력

담임교사



- 진로와 직업 학습현황 이해
- 개인별 학생 진로특성 파악
- 개인별 진로발달 및 선택 조력
-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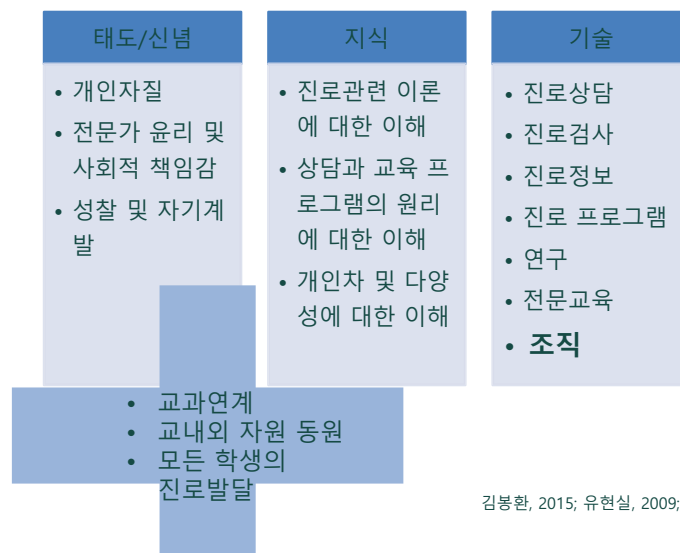
04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 진로전담교사의 학습
- 진로전담교사의 태도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 진로상담 전문가 역량모형 참고



김봉환, 2015; 유현실, 2009; 정진철 외, 2017

진로전담교사가 배워야 할 과목

- 학부교육 전공학점(70학점 내외)

과목명(17과목 51학점)	태도	지식	기술
현대사회의 변화와 진로지도	○	○	
진로진학 교육과정 연구		○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		
심리검사의 이해 및 활용		○	○
진로진학 성취목표 달성 평가론			○
진로상담이론	○	○	
진로상담기법			○
진로 개인상담 실습			○
진로 집단상담 실습			○
진로상담 사례연구			○
문화다양성과 진로진학지도	○		○
장애학생 진로진학지도	○		○
진학 및 구직행동지도			○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작성지도			○
진로교육 및 상담과 테크놀로지 활용			○
진로진학 상담 봉사활동	○	○	○
교육실습(진로와 직업) I, II	○	○	○

기존 기본이수과목 (9과목 27학점)

- 진로교육개론
-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탐색
-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 교육세계와 진학정보 탐색
-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상담

교육과학기술부(2011).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 4조 2항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숙지

- 진로교육법(2015) 제 4조

스스로, 평생, 소질과 적성, 체험 바탕,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활용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01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스스로 진로 계획 지속적 개발 가능한 역량 함양



02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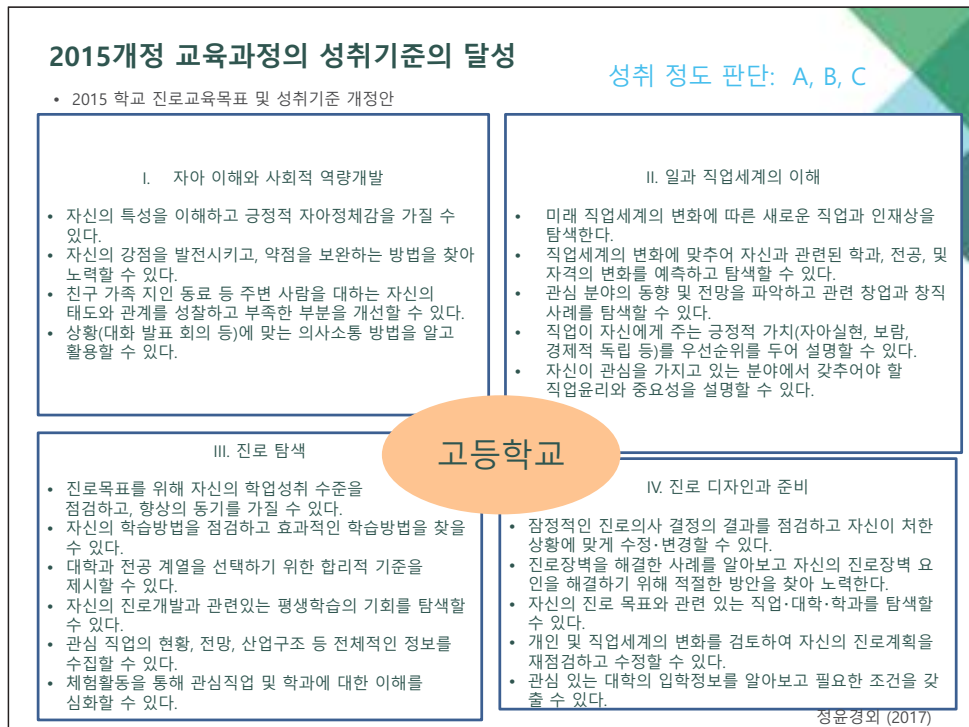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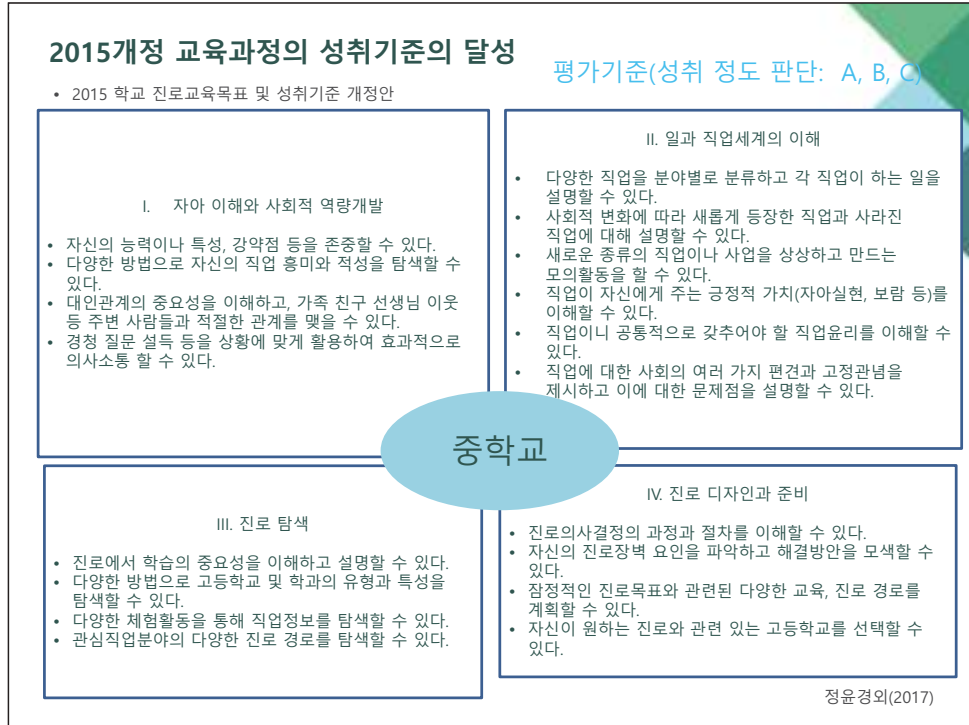
03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04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함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의 적용

- 중학교 진로와 직업 평가기준의 예시(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9진01-01]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강·약점 등을 존중할 수 있다.	상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강·약점 등을 파악하고 다양하게 표현해 보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다.
	중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강·약점 등을 표현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하	자신에게 능력이나 특성, 강·약점 등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9진01-02]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다.	상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을 부분적으로 탐색하고, 탐색한 내용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9진01-03]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 친구, 선생님,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상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가족·친구·선생님·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중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가족·친구·선생님·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윤경외(2017)

평생 진로학습자의 촉진

- 주도적인 평생진로 학습자로서의 성장과정 격려



운전자
평생학습자
스토리-의미 크리에이터

Maree (2019).
Patton & McMahon (2014)

어느 고등학교 교사의 퇴직 후 내러티브

- 성찰하고 탐구하는 진로교육 인력에 대한 시대의 요청

현재 우리 교육계의 진로전담 교사들에게 강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학정보를 찾는 역량이고, 둘째는 진로심리검사를 사용하는 역량입니다. 진로심리검사의 경우 해석까지 능숙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로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이나 진로정보는 진로지도를 위한 소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진로지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이해시키는 역량을 지닌 교사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막바지에 성급하게 학생에게 묻고는 합니다. '성적 되냐?'
자기를 알기 전 '난 좋아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건 공부 아니예요.' 라고 말하는 학생의 논리에 압도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여 '그래 학생이 좋아하는 (공부 아닌) 일을 찾기 위해 탐색을 시작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을 알고 가는 진로교사라면, 지금 하는 진로체험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질문 한 가지만 던질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활동이 네게 무엇을 느끼게 했는가, 수업을 받으면서 어느 단원이 끝났는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느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말하게 해서 말하지 않으면 쓰게 하고, 쓴 것을 읽게 하면서 표현할 기회를 주고, 열심히 연구하듯 들으면서 그 학생의 표현을 격려하며, 이야기 속에서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 준다면

학생은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듣는 방법, 묻는 방법, 찾는 방법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의 뿌리깊은 언어습관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중-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http://ncic.kice.re.kr/nation.mest.br6.view.do>
- 교육과학기술부(2011).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 4조 2항.
- 김봉환(2015). 학교상담 전문가의 진로상담역량 강화: 학교상담전문가 자격연수, 3, 33-48. 한국카운슬러협회.
- 손은령(2017). 진로무질서이론. In 임은미, 강혜영, 고희월, 공윤정, 구자경, 김봉환, 손은령, 손진희, 이제경, 정진선, 황매향(2017). 진로진학상담 기법의 이론과 실제. 사회평론.
- 안선희, 서우석, 조대연, 권정연, 이진남, 방혜진(2015).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 유현실(2009). 진로상담전문가 역량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범, 최동선, 고재성, 이혜숙(2010).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정윤경(2016).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과 과제. 진로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 정윤경, 김진숙, 정동순, 이승아, 김가연(2017).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와 직업 평가기준 개발 연구. 교육부.
- 정진철, 김재호, 남중수, 임소현, 정성지, 조홍용(2017). DACUM방법을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직무분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957-978.
- 허창수(2017). 성찰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 In 손은령, 문승태, 임경희, 김희수, 손진희, 임효진, 여태철, 손민호, 고희월, 공윤정, 허창수(2017). 진로진학상담교육론. 학지사.
- D'Andrea, M., & Daniels, J. (2001). RESPECTFUL counseling: An integrative multi-dimensional model for counselors. In D. B. Pope-Davis & H. L. K. Coleman (Eds.), *The interse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multicultural counseling*(pp. 417-466). Thousand Oaks, CA: Sage.
- Kettunen, J., Vuorinen, R., & Sampson, J. P.(2013). Career practitioners' conceptions of social media in career servic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41, 302-317.
- Maree, J. G.(2019). 진로구성상담의 원리와 실제 [Counseling for career construction](김봉환, 장계영 역) 학지사. (원전은 2013년 출간).
- Patton, W., & McMahon, M. (2014). Career Development and Systems Theory. connecting theory and practice. SENSE PUBLISHERS.



주제토론 1

진로교육 인력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문

손은령 (충남대학교 교수)

“진로교육 인력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문

손 은 령

(충남대학교)

‘진로교육 인력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전개해주신 임은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 모두가 진로 교육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예비교사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로교사, 교과교사, 비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 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신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의 역사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장점과 한계점을 탐색하고, 이를 진로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측면으로 구분해서 진로교사 양성체제의 명과 암을 바라본 것은 새로운 관점이며, 의미있는 시도라 생각합니다. 부전공 연수로 양성된 진로 교사들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 교육대학원 부전공 연수 및 학위과정-를 대신하여 학부 수준에서 진로교육 담당 학과(진로직업상담학과)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학교 진로 교육의 허브역할을 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교와 지역, 국가를 연계하는데 중핵이 되어야 하는 진로 전담 교사가 단순히 5학기 또는 몇 시간의 집중 연수를 통해 배출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진로 교육의 현장에서 연수를 담당해왔던 교수자로서 여실히 느껴왔던 바입니다. 이 밖에도 진로 전담교사의 역할과 양성 과정의 교과목 등에 대한 의견들 모두 현장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지혜라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사범대학의 교육학과에 재직하면서 예비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을 토대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로 전담 교사를 양성하는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진로교육을 전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즉, 진로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발표자가 이미 여러 주장을 펼친 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저의 의견을 더하고자 합니다.

1. 진로교사 양성 학과의 운영에 대하여

발표자는 기존의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과정으로 진로관련 지식과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태도의 함양 측면에서는 보다 심화된 수업과 실습 과정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의 학부과정인 진로직업상담학과를 통해 교사를 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과의 신설이나 학과명칭의 변경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러한 조건에 맞는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과 신설은 교원 양성과정을 줄임으로써 교사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절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육학과의 부전공과정으로 진로전담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입니다. 대부분의 사범대학에는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의 학생들은 예비교사 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단수 전공의 경우 교육학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전공(예: 영어교육)과 교육학 교사자격증을 두 개 취득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981년도까지는 교육학과 졸업생에게 윤리교사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4년도에 교육학과에 입학하였고 당시 부전공으로 사회교육을 선택하여 중학교 사회교사로 총 5년을 재직한 바 있습니다.

부전공 과정으로 교육학과에서 진로 전담교사를 양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학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의 전달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본 이수 과목-진로교육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탐색,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상담-과 교과 교육학 과목-진로진학상담교육론, 진로진학 교수법 및 평가-은 현재 운영중인 교육학과 교과목에서 수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현재 각 대학의 교육학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복수 전공 이수의 어려움, 교사 임용률 저하 등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전공 70학점을 진로관련 교과목으로만 구성하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지만 부전공 30학점은 운영이 다소 쉬워지며, 기존 교수진들의 반발도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질 높은 진로교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부의 부전공 과정으로 진로전담교사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대학원

부전공 석사학위과정과도 병립이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운영되는 부전공 과정은 이제 막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사 양성 학과를 학부수준에서 만들게 되면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격증 취득자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동등하게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를 양성하게 된다면 서로 상생하는 지혜를 모으면서 학교 진로교육의 발전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비교사 양성과정의 개편에 대하여

발표자의 제안처럼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을 받고, 진로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진로 이론을 중심으로 학생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적 등을 토대로 하여 진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이러한 문제는 단지 교사들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교사양성교육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진로 교육과 상담 교육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2013년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에서 가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현재 교직과목 어디에도 진로상담이나 진로관련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라는 교직 소양과목에서 일부 다루어질 여지가 있을 뿐 예비교사들은 학부수업을 통해서 진로관련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할 수 없습니다. 박도영 등(2016)과 차성현(2017)의 연구결과에서도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진로지도 교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교에 임용된 그 순간부터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개인상담과 학부모 상담 등을 담당해야 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 것을 실행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실시된 정책 연구(박수정 외, 2019)에서 교사양성체제 개선안으로 ‘학교 상담과 진로교육’을 교직 기초(필수)과목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관련 학회 등의 반발에 부딪혀서 수정된 대안 제시로 내용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발표자의 제안을 지금의 체제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직 소양과목인 ‘교직실무’ 교과를 ‘진로교육 실무’로 교과목명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직실무’ 과목은 그 명칭이 갖는 모호함 때문에 대학마다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대학에서는 교수법을 실습하는 교과목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을 담을 수 있는 교과로 활용하도록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절충안은 이미 정철영 등(2017)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봉사’ 과목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교직 이수자들은 모두 60시간의 교육 봉사시간을 채

위야 합니다. 현재 이 봉사시간은 자율이라는 포장을 쓰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이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 봉사의 실제 내용을 진로체험,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계도하거나,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명칭을 ‘진로교육봉사’로 바꾸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진로교사들은 예비교사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예비교사들은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볼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과 교육학 과목을 진로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고교에서는 자유학기제, 학점 은행제, 입학 사정관계 등등으로 인하여 교과의 내용과 진로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과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예비교사들이 현직에 임용된 이후에는 교과지도만이 아니라 자신의 교과와 진로를 연결해서 수업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6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교과교육론 과목의 명칭을 ‘진로와 **과 교육론’ 또는 ‘진로와 **과 교수법 및 평가’ 등으로 수정한 후 각 교과의 내용과 진로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학부수준에서 진로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학과가 운영되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교사들의 진로교육 역량과 진로상담 능력이 향상될 수는 없습니다.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연수와 재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과 협력이 동반된다면 ‘모든 교사의 진로교사화’라는 발표자와 저의 꿈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박도영, 가은아, 민용성, 이양락, 이은경, 임찬빈, 정은주, 조보경 (2016). 역량중심 교육환경에 따른 교사 자격검정 개선방향. 2016 KICE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박수정, 박상완, 박용한, 차성현 (2019). 미래형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교직과목) 개편 연구. 교육부.
- 정철영, 정진철, 이종범, 남중수, 정지은, 임소현 (2017). 교원양성기관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내용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151-171.
- 차성현 (2017). 한국의 교원양성 및 선발체제 개선과제. **우리나라 교육혁신을 위한 전국시도 교육청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519-539.
- OECD (2014). *TALIS 2013 Res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eaching and Learning*. OECD Publishing.

주제 토론 1

진로교육 인력 혁신방안: 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강혜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한국진로교육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

<진로교육 인력 혁신방안: 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 토론자: 강혜영(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
- 토론일: 2019년 6월 5일(수)

<토론 내용 구성>

1. 학교 내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자 소견)

- (1) 현재 '부전공 석사학위' 제도의 보완 문제
- (2) 진로전담교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
- (3) 예비교사 양성에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혁신 문제
- (4) 대학의 학생 평가제도 혁신 문제

2. 학교 외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非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자 소견)

- 퇴직교사 및 교수의 인력운용 방안

1. 학교 내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주제발표 요지>

- 1) 학교 내에서 모든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비교과 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진로교육에 참여해야 함 => 진로교육자로서 체계적인 양성 필요

근거) ① 사회의 변화 속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변화

② 진로교육의 대상은 모든 학생

<- 진로교육의 목표는 전 생애적 진로개발역량 함양

1. 학교 내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 2) 모든 교사 대상, 진로교육자로서 체계적 인력 양성 방안
=> 학부교육단계부터 교육 필요함

- (1) **非 진로전담교사**: 3개의 **교과목** 추가 수강!

	비 교과 교사	교과 교사
교직필수	진로교육 및 상담	진로교육 및 상담
교직선택	문화다양성과 진로교육 진로발달과 진로문제	문화다양성과 진로교육
전공필수		진로연계 교과교육

- (2) **진로전담교사**: 학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진로직업상담학과**' 개설!

1. 학교 내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검토 필요 사항>

- (1) 현재 '부전공 석사학위' 제도의 보완 문제
- (2) 진로전담교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
- (3) 예비교사 양성에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혁신 문제
- (4) 대학의 학생 평가제도 혁신 문제

1. 학교 내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검토 사항 1>

(1) 현재 '부전공 석사학위' 제도의 보완 문제

- 교원자격증이 있으면서 진로분야로 특화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진로전담교사 자격증 취득 위해, 다시 석사과정에 입학해야 하는가?
- 교원자격증이 있으면서 진로분야로 특화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진로전담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어려운가?

1. 학교 내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검토 사항 2>

(2) 진로전담교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

- 초, 중,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배치율: 96.7%
(국·공립학교: 97.5% / 사립학교: 91.9%) (2018. 4 기준)
(정은진 외, 2018)

=> 진로전담교사 배치 인원 증가 필요

1. 학교 내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검토 사항 3>

(3) 교사양성에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혁신 문제

- 진로전담교사의 “조직 역량”이 매우 중요함

참고) 진로전담교사의 업무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 결과,
‘지역사회 네트워킹’ 평균이 다른 업무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중요도 평균: 3.75/ 실행도 평균: 3.09 (정은진 외, 2018)

- > **교육내용**: “조직역량” 향상 위한 교과목 포함
- > **교육방법**: “조직역량” 향상 위한 새로운 교수법 활용

1. 학교 내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검토 사항 4>

(4) 대학의 학생 평가제도 혁신 문제

- 대학의 학생 평가의 변화 필요
 - 교과목의 특성(목표,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타당한 적용
 - > 단독 평가(교수)와 다면적 평가(교수,본인, 동료) 적용

2. 학교 외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 퇴직교사 및 교수의 인력 운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퇴직교사 현황: 퇴직교사 비율과 평균 연령

<표 1> 퇴직교사 비율 (단위: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	3.8	4.0	4.0
2015	2.5	3.3	3.1
2016	2.2	3.2	3.0
2017	2.2	3.4	3.5

<표 2> 퇴직 교사의 평균연령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	56.3	56.2	56.0
2015	53.2	54.2	54.2
2016	53.7	54.1	54.0
2017	54.5	54.3	54.5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104, 106)

2. 학교 외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 퇴직교사 및 교수의 인력 운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교사들의 퇴직관련 사항 인식은?**

: 2000년 - 2017년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초·중등 교사 대상,
퇴직관련 연구물을 분석하여 제시한 논문(김영석, 2018)

①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 하고 싶은 일의 영역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퇴직 이전에 하던 일과 유사한 직무 분야를 퇴직 이후에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내 활동: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선호 비율 높음(35.0%~44.7%)

-> 학교 밖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39.4%), 청소년 선도활동(34.1%) 높음

2. 학교 외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 퇴직교사 및 교수의 인력 운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② 교사들은 퇴직 후, 재취업에서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수대상의 퇴직관련 연구는 찾기 어려움

- 현재 진행된 퇴직관련 연구대상: '베이비부머, 시니어, 기업 종사자'
등이 대부분임. 전문 인력의 퇴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함

=> 퇴직 교원의 진로교육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필요

<요 약>

1) 학교 내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 검토해야 할 4가지 문제

- ① 현재 '부전공 석사학위' 제도의 보완 문제
- ② 진로전담교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
- ③ 예비교사양성에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혁신 문제
- ④ 대학의 학생 평가제도 혁신 문제

2) 학교 외 진로교육 인력양성 측면:

- 퇴직교사 및 교수의 인력 운용 방안 고려

참 고 문 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 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석(2018). 초·중등 교사의 퇴직에 관한 국내 연구 유형 분석 : 2000년-2017년 연구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4권 3호, 31-59.

정은진, 정윤경, 김나라, 류지영, 김재희, 장현진 (2018).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1. 진로교육 현황조사: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수탁사업 2018-17-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y97kang@koreatech.ac.kr

주제발표 2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는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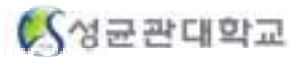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는 어떻게?

양 정 호

2016. 6. 5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목 차

1. 한국교육 위기, 성과와 도전
2.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주요 핵심 정책
3.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닭? vs 달걀? 논쟁
4.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향후 전망

1. 한국 교육 위기: 성과와 도전

3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교육? 현실은...

Go Back to
개천!!!

4

OECD 최고의 학업성취!, 그러나 최악의 학생행복?



(자료: Levy, Where in the world you can find the best schools-and the happiest kids, 2014)

5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 삼포+세대, 빙고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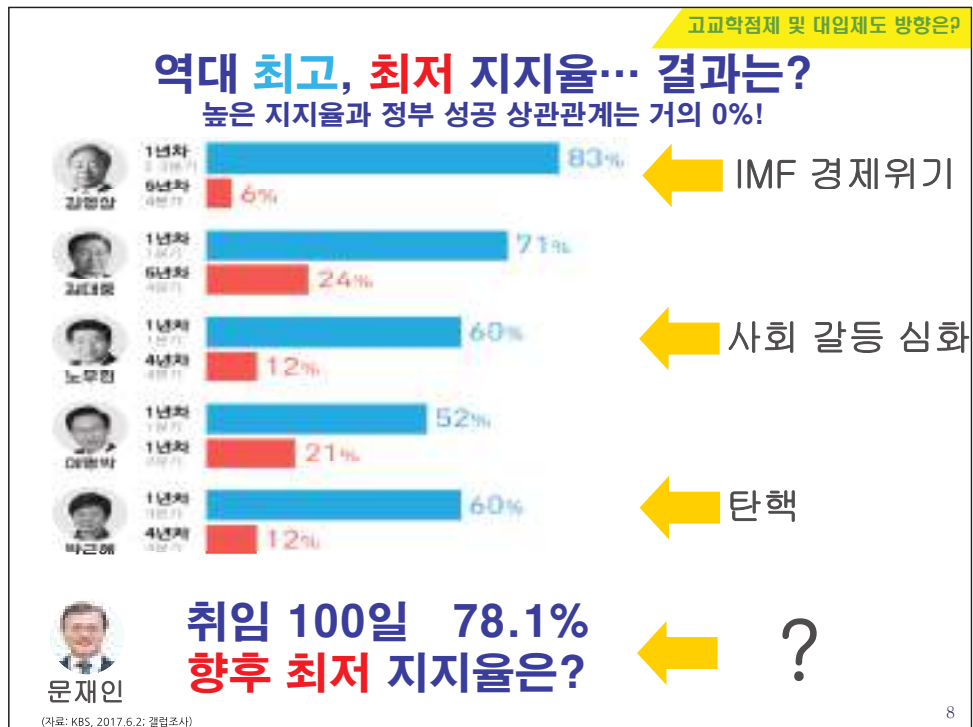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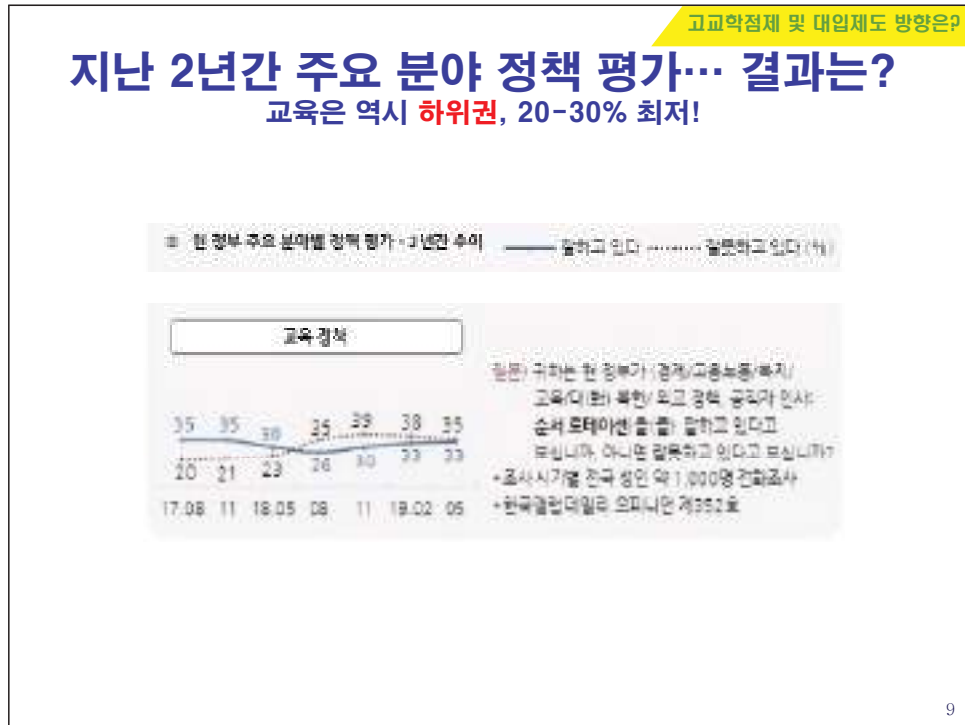
'흙수저 빙고' 게임				
화장실에 볼 빚는 대아 있음	연말주말에 살	세뱃돈이 100만 원은 책 있음	올해 세뱃 돈 있음	부모님이 장거 간경련 한 번 있음
입에 육조 없음	강제 중환이 뜨거나 통간 못 있음	부모님 취미생활 있음	부모님이 차식 교육에 참석 있음	집 TV가 브라운관이거나 30인치 이하 평면
냉동실에 허냉로 신 원기가 있음	부모님이 음식 남기지 않고 잔소리함	가계부채 있음	고가는 주로 물려 받고 물가는 빚식으로 물려세 있음	종교나 나라에서 거래하면 꼭 있음
부모님 이혼	1년 내내 칭찬 한두 걸음 반영이 없음	식당 우리 미래 세대부터 허탈로 된 것됨	빚에 빠진 있음	이렇게 허락권을 잘 안 풀거나 왜곡한 지체가 없음
본거지 임대이거나 7대 이하 전세	인터넷 쇼핑할 때 후자가 있고나 시크한 말이 무자함	집에 차가 없거나 연식 1년 이상	옷장에 유령 지갑으로도 생겨난 옷 있음	집에 공방이 된 곳 있음

*2개 항목 중 자신의 해당하는 항목에 O 표시를 한다. O가 7개 이상이면 대략적 등 학력으로 5대 이상이면 빙고 및 빙고 게임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알려진 흙수저인지는 자동으로 알려 준다

(자료: 국민일보, 2015.8.28: 사회경제자문회의, 2015)

6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2.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주요 핵심 정책

10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흐름

❖ 대선기간: 교육공약 발표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13개 공약

❖ 국정기획위기간: 향후 국정과제 발표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 6대 과제

❖ 교육부 추진방안: ?

11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방향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 모든 아이? 개념 혼란 가능성

- 개념상 저소득층, 상류층, 우수학교, 취약학교 모두 포함
- 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우수학교 폐지, 하향 평준화 유도로 모순

- **국가 책임교육**(5년 동안 정부평가시 부메랑될 수 있어 가장 부담)
- **혁신 교육**
- **공정 교육**

12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대 국정과제	
교육공약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 공교육혁신, 사교육비 경감 • 고교 학점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 1:1 맞춤형 교육 추진 • 든든한 울타리 학교(교사 전문성 신장)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 대입제도 단순화 • 고졸희망시대(직업분야 특성화고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체제 • 교육 계층 사다리 복원 • 대학 체질 강화 • 교육거버넌스 개편 추진	국정과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국립의 나라, 청의로운 대한민국						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국가발전	국민의 힘	미래세대	국민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1. 국민연금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1. 소득주도 성장 실현 실현	1. 수도권 노후 소득보장 확대	1. 지방 자치단체 의 재정 안정	1. 지방 자치단체 의 재정 안정	1. 지방 자치단체 의 재정 안정	
2. 소득주도 성장 실현 실현	2. 사회적 보장 확대	2. 사회적 보장 확대	2. 사회적 보장 확대	2. 사회적 보장 확대	2. 사회적 보장 확대	
3. 부채비율 유연성 확대	3. 지역 경제 활성화	3. 지역 경제 활성화	3. 지역 경제 활성화	3. 지역 경제 활성화	3. 지역 경제 활성화	
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330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330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330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330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330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330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연성 확대	

□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세부 6대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영어머리 대한국어 교육의 공통점 정리	-유대교육 국가정책 확대 -문종일 부총재가주축 -국교 수업교육 실현 -대학 등록금 및 조기보급 정책
고급학원을 통한 공교육 혁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선로맞춤형 고교제와 전환 -기초학력 보강 및 1군구 고교제화 -평생교육 및 자문화국가 확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인력 강화 -E-러닝도 커스텀 및 콘텐츠 채굴
교육의 중심사다리 복원	-사회적 재능의 대상자 대입지원 강화 -시니어대학원 교육지원 강화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학비·생활비의 종합 지원
고급교육과 불 해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 강화 -취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연준대 총 학내지 체고 -K-MODE를 통한 병행학습 활성화 -대학진입 및 진로개발 활성화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맞춤형 학교 구현	-지식문화 융합 교육 강화 -안전한 수송 교통체계 조성 -학교 누리집을 통한 질 수준향상을 개선 -영양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교육민주주의 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힘 -교육혁신위원회 설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 기능개선 -민립대학교 지치 강화 -전담교육 소관장학자 강화

15

□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 -> 개선이냐?, 혼란이냐?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고교학점제 확대

◆ 성장중심 내신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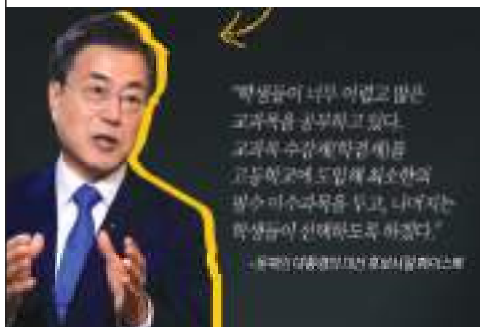
◆ 수능 절대평가 및 대입전형 단순화

16

3.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답? vs 달걀? 논쟁

17

□ 고교교육 혁신 가능성 -> 연기, 또 연기,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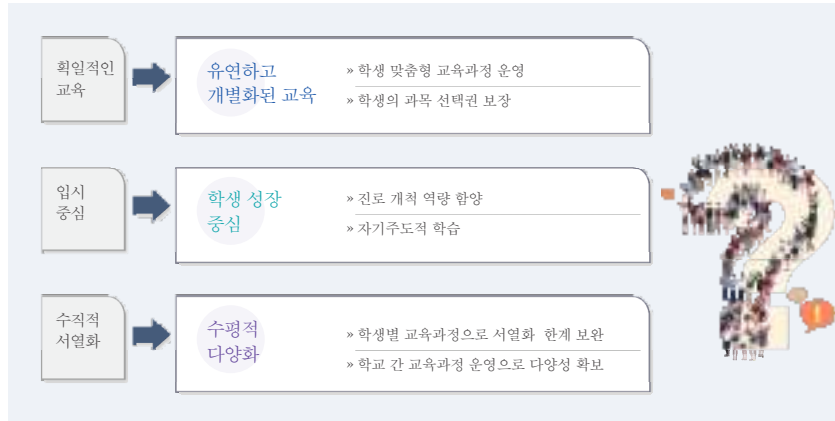


후퇴하는 문재인 교육공약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중장기 과제 전환
고교학점제 2022년 도입	▶ 2025학년도 도입(3년 연기)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 2025년학년도 도입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 고교체제 개편방안 2020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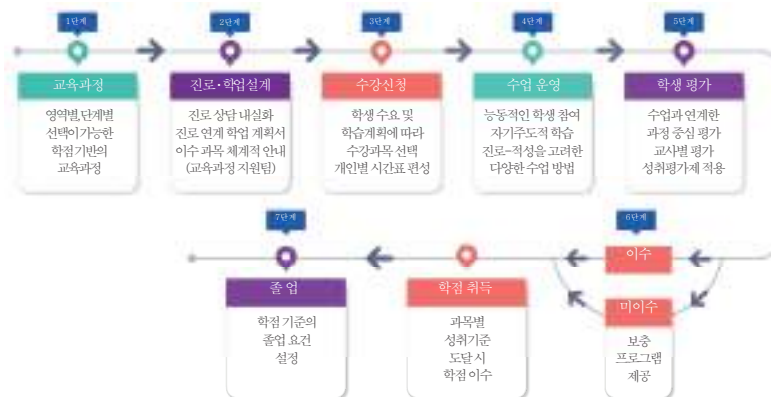
18

□ 고교교육 혁신 가능성 -> 방향과 현실의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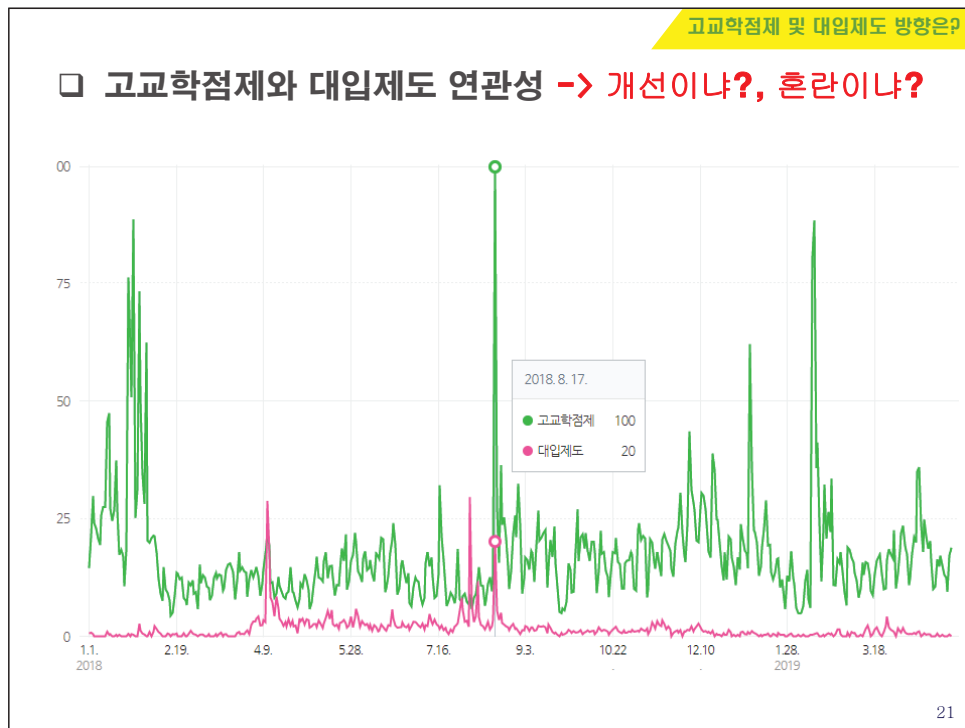
19

□ 고교교육 혁신 가능성 -> 역시 방향과 현실의 충돌



20

양정호 /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 교과학점제 및 대입제도는 어떻게?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고교학점제 외국 사례와 우리는? → 가능한가?

						
구분	미국	대한민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필수교육	5~7년	13년	3년	8년	9년	10년
가용강좌	200~400개	200개	70개	150개	40개	40개
교육과정 운영	무학년 학점제	무학년 학점제	무학년 학점제	학년제 학점제	학년제	학년제
내신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졸업요건	학점 이수 졸업시험	학점 이수 졸업시험	총점 시험 (COEA)	학점 이수 졸업시험	졸업시험	졸업시험
대입	SAT 고교내신	고교내신 졸업시험 대학별시험	고교내신 졸업시험	고교내신 졸업시험	고교내신 졸업시험	고교내신 졸업시험

*자료: 교육부
그림: 김지영 디자이너

한국은?

23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고교학점제 추진계획 -> 현 정부를 넘어서?**



24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고교학점제 도입조건 -> 제도변화냐?, 현실적응이냐?



25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연관성 ->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

❖ 고교는 대학이 아니다!

❖ 중고생은 성인이 아니다!

❖ 과목선택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다!

26

4.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향후 전망

27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마다 반복된 교육개혁, 문제는 늘 그대로

문재인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박근혜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문재인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박근혜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문재인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박근혜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문재인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박근혜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문재인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박근혜 정부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 도입

입시 지옥 해소와 인간 중심 교육개혁

지식혁명의 주도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

문재인 정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자료: 한겨레, 2015.3.16)

28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목표, 다시 보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재음미

29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5년후? ‘척’ · ‘것처럼’ 정부 안되야

현재

5년후

- 기회는 평등한 척
 - 과정은 공정한 척
 - 결과는 정의로운 척

-척 정부

- 기회는 평등한 것처럼
 - 과정은 공정한 것처럼
 - 결과는 정의로운 것처럼

-것처럼 정부

30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하지만 현 중고생 -> 2021+학년도 트리플 악재!

수능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31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고교학점제 '실험학점' 해결책 -> 진로진학교육 패러다임 변화!

과목 선택 폭 확대, "단순한 수업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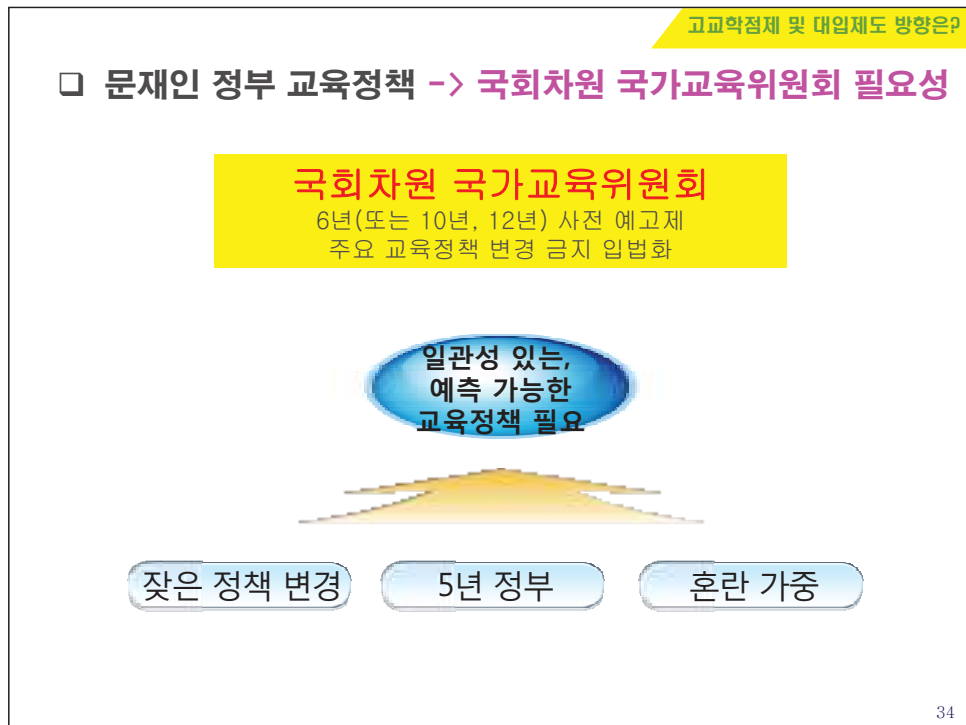
진로진학상담교사 Counselor 확대
1-2명 vs 16명

Year 1	Year 2	Year 3	Year 4
Mathematics I	Mathematics II	Mathematics III	Mathematics IV
Science I	Science II	Science III	Science IV
History I	History II	History III	History IV
Physical Education I	Physical Education II	Physical Education III	Physical Education IV
Art I	Art II	Art III	Art IV
Music I	Music II	Music III	Music IV
Foreign Language I	Foreign Language II	Foreign Language III	Foreign Language IV
Health Education I	Health Education II	Health Education III	Health Education IV
Life Science I	Life Science II	Life Science III	Life Science IV
Environmental Education I	Environmental Education II	Environmental Education III	Environmental Education IV
Information Technology I	Information Technology II	Information Technology III	Information Technology IV
Career Education I	Career Education II	Career Education III	Career Education IV

+

복잡, 과중, 업무형에서 단순, 집중, 코치형으로

32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방향은?

□ 정책방안 및 과제: OECD 성공적인 인재양성 정책 우선순위

❖ **교육개혁에서는 실현가능성, 정책영향력에 따라 세부 정책들간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

- OECD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교육정책 분석에 따르면, 교육의 중요성 공유, 주체별 교육역량 향상, 효율적 자원 분배, 교원 질 관리, 학습자중심 수업개혁, 인센티브 구조마련 및 책무성 강화,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핵심요인으로 등장
- 국내 인재양성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OECD국가별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교육정책

(자료: Schleicher, Universal basic skills, World Education Forum, 2015)

35



교육, 그래도 멀리 보자

- ❖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
- ❖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
- ❖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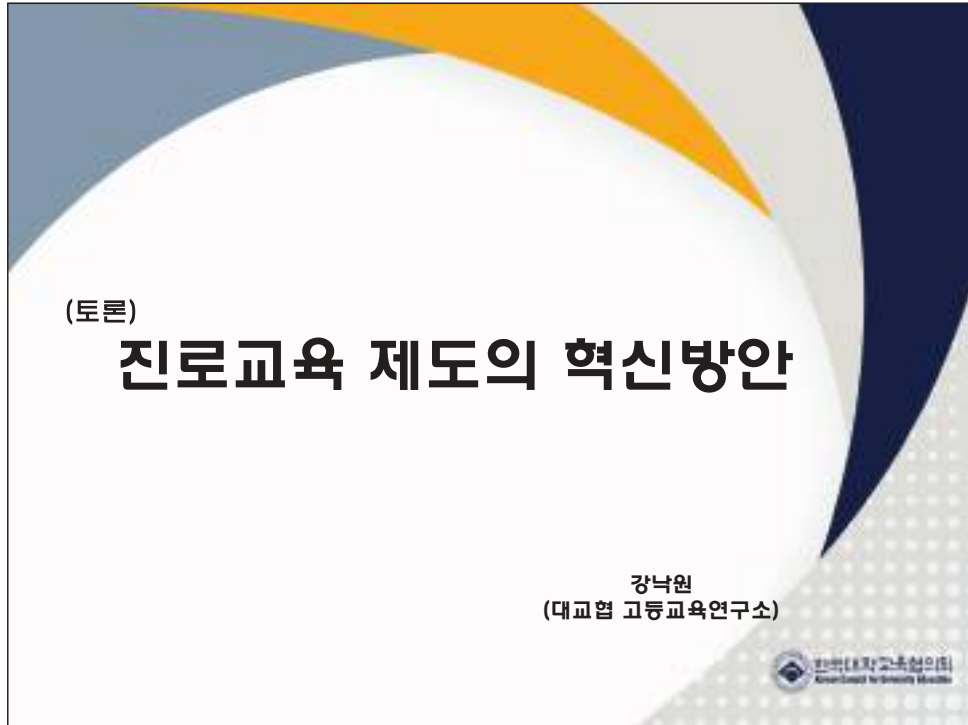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38

주제토론 2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토론)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미래 사회의 특성과 ‘필요 역량’ 은?

학령인구의 감소,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



*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전문가토론회(18.6.7)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2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토론)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혁신 역량의 강조,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동”

- 3R + 학습과 혁신 역량, 정보통신기술 역량, 생애 역량
 - 학습과 혁신 역량
 - 4C :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동(collaboration)
 - 정보통신기술 역량
 - 각종 기술 및 매체 의존적인 미래 사회에서 다양한 기술과 매체에 대한 활용 능력이 갖춰진 상태
 - 생애 역량
 - 일상생활과 직업 환경에서 필요한 유연성, 자기 주도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 리더십과 책임감 등

3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토론)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국내외 고등교육의 ‘혁신 동향 및 사례’ 는?

- ✓ 기초교양교육의 변화
 - 대학별 특성화, 범위와 수준의 확대 등
- ✓ 학생중심적 교육의 실현
 - 학생주도형 교육, 유연한 학사구조 등
- ✓ 교육방법의 혁신
 - 실세계의 요구에 대응하는 역량교육,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등
- ✓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 유학생 유치전략 및 관리체계 강화, 커리큘럼의 글로벌화 등
- ✓ 평생학습 및 커리어 개발교육의 강화
 - 산학연 강화, 평생교육 및 커리어개발교육 강화 등

4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토론)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 개방을 통한 연계
- 유연한 학사운영



- 학습자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 심리정서적 학생지원
- 학생중심적 교육 실현



- 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5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토론)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대학의 진로교육 사례

- Gap year 프로그램
 -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또는 대학 기간중에 실시하기도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 영국
 -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입학 전까지 3~24개월간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활동
 - 프로그램 도입 후 중도포기자 줄어들고, 학업성취도 15% 이상 향상
 - 미국
 - 대학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진행, 입학전 신입생 대상으로 운영
- = 학생의 동기부여, 학업 및 비학업적 능력 향상, 사회의 공공건강에 긍정적인 효과 등

* 출처: 김정희 외(2017), 대학생 학년단계별 진로교육시스템 구축지원 연구

6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토론)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고교학점제,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지향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역할

- 학생 : 자기주도적인 학습주체로서 과목 선택, 학업설계 등
 - 교사 : 수업과 평가에서의 자율성과 전문성 발휘 등
 - 학교 : 학습의 질 관리 등
- ⇒
- 제도 운영을 위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 학교에 대한 신뢰 확보

출처: 강현석(2018),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안착방안, 이슈페이퍼 2018.

7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토론)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과제

-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구성 혹은 시간표 구성이 유연하게 작동 되는 시스템 필요
- 선택과목 수강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학교밖 학습경험’과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필요
- 유의미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고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 향상 필요
-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로의 지향 필요

8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토론)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과제

- 수업과 평가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연계 필요
 - 예, 학년 단위 공통평가, 교사별 과정평가의 균형 등
- 교과학습에 대한 질관리를 통한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 필요
 - 예, 과락, 유급, 재이수 등으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등
- 선택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와의 연계 필요

* 출처: 이광우(2018), 고교학점제 실행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요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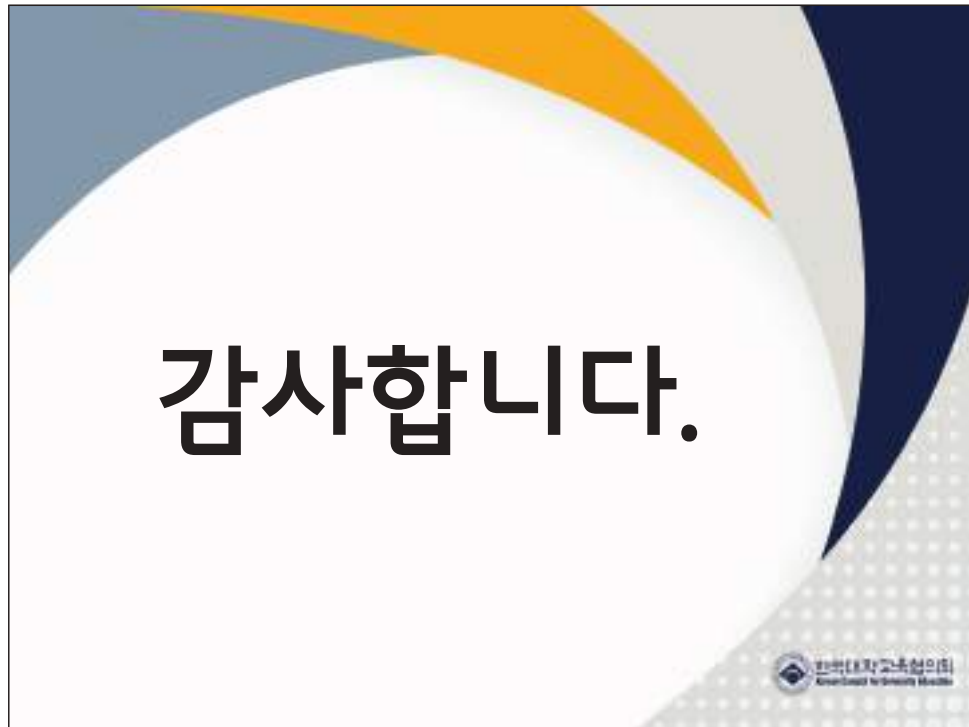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토론)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대입제도와의 연계, “대입전형의 개선”?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시험의 역할 변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절대평가 확대 • 수능 자격시험화 추진 등 ○ 대학별 고사의 역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방법의 자율화 • 평가의 공정성 등 ○ 학생생활기록부의 역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신 절대평가 확대 • 기록 내용의 공정성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시행체계 마련 ○ 종합적 접근 검토 ○ 개선방안의 통합 시행 ○ 신뢰 구축을 위한 엄정 관리 |
|--|---|---|

10



주제토론 2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방안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는 어떻게 토론문

김동춘 (대전이문고등학교 교장)

진로교육 제도의 혁신 방안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는 어떻게 토론문

김 동 춘

(대전이문고등학교 교장)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확대, 입시 간소화, 수능 절대평가 등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문재인 정권의 독창적 아이디어였던가?

대부분의 공약들이 이미 박근혜 정권의 정책이거나 그 이전에 방향이 결정된 것을 되새김질 한 것이다 많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권인지 의심스럽다.

양정호 교수님 말씀을 곡해하면 문재인정부의 모든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유치원 국공립 확대, 사학 비리 근절, 자사고 폐지, 돌봄 교실 확대와 같은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자기들의 색깔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잘하나 못하나의 문제를 떠나 이 정권의 성격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공통점은 현재 나타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고교학점제 연기, 수능 30% 확대, 수능 변별력 강화 등 공약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거창한 구호만 외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정호교수의 현실을 직시한 비판과 대안에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양교수님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모든 아이’에 대한 개념 혼란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우수학교 폐지와 하향평준화 유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수학교는 넓게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좁게 생각하면 자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범주를 자사고로 좁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수학교라는 것이 교육역량이 우수한 학교라는 것인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라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자사고는 불과 몇 년 전 기존 자립형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일반고에서 전환한 학교들입니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원의 이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가 되면서 학교의 교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입학하는 학생들의 중학교 학업 성취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일반전형 중학교 석차백분율이 하한선이 20% 내외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80%대가 넘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높아져 우수 학생이 많은 학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자사고의 교육역량이 일반고보다 뛰어나 우수학교가 된 것이 아니라 선발효과에 의해 우수학교가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사고 폐지가 하향평준화라는 논리가 일반고의 교육역량 부족으로 이해되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수학교는 선발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교로 등록금 약 3배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상류층 자제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에서 이들은 제외된다고 보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는 20%에 달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자사고 폐지가 상류층 아이들만 배제된다는 논리는 좀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는 상류층이면서 지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사고가 폐지되면 이 학생들은 일반고로 가서 상위권을 형성할 것이고 기존 그룹들은 차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또 수능 확대에 교수님 말씀처럼 일반고의 교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이들은 수능을 위한 사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조차 밀려나 ‘희망사다리가 아니라 끊어진 절망 사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상류층 우수학생이 불리한듯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학생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사고에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바닥 등급을 깔아주고 있던 것을 이제 일반고까지 확대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근로자들의 수입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진보라는 명분을 걸고 민중을 위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실은 반민중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척’, ‘것처럼’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교 학점제 2022--> 2025 실시와 성장 중심 내신제도 변화(성취평가제, 절대평가) 2025 도입, 수능 절대평가 중장기 과제로 전환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교육공약 연기가 공약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공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행 능력이나 공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 말씀을 고려해 해결책은 있다고 보시는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제 생각을 들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는 아직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제도로 많은 혼란이 야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라고 교육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최대한 다양하게 하되 부족한 것은 인근 학교 간 협력, 온라인이나 지역사회 시설(평생학습시설, 대학)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교사와 교실, 근무 시간이 제한된 한 학교 내에서 운영하려면 수업 시수는 현재와 같지만 과목당 시수는 현저히 줄어들어 교사 한 명당 3-4과목 정도씩 담당해야 하는데서 발생하는 교육의 질 저하 문제, 교실 부족과 중복 수업 예방으로 인한 공강으로 야간까지 수업 시간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 인근에 고교나 대학이 없는 지역의 문제, 단순 온라인 수강이 아닌 양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된 학교와 학생 문제는 아직도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는 대도시·대규모 학교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이 정권의 정체성이 의심이 갑니다.

둘째, 학점은 수업을 한 교사의 기준에 의한 성취도평가(절대평가)에 의해서 인정받는데 미이수 학생은 유급이 아니라 보충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미이수 하는 학생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어차피 공부를 안합니다. 보충 프로그램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간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 학년 올라가는 문제점은 그대로 재연될 것입니다. 유급도, 졸업시험도 없는 고교학점제는 결국 진로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이므로 평가의 수월성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진로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내신성적 따기 수월한 선택이 되어 고교 학점제는 ‘기존 학교라는 사회 체제의 부정’ 효과만 내고 자멸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선택 과정에 고교가 대학이 아니고, 미성인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보시는데 현장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로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수님의 말씀처럼 과중하고 형식적인 업무에서 학생들의 진로 코칭으로 업무를 단순 집중시킬 것과 증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금상첨화라고 봅니다.

여담이지만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이 문제인정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네요. 비전 있는 정책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양교수님의 수능 3단계 자율화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3단계 중 2단계의 시작인 2022 수능까지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1 수능		⇒	2022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국어, 수학, 탐구

교수님께서 2단계에서 수능을 2원화 하자고 하시면서 영어를 다시 상대평가로 하고 국·영·수를 공통 필수과목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에서 수능 반영여부 자율화 하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2단계에서 수능의 변별력이 강화되어 선발고사로서의 수능의 기능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선발 기재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수능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실제로 활용하게 해놓고 선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교수님은 현행 수능이 선발도구 이외에 대학 수학 능력을 예측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졸업고사와 같이 고교교육과정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수능이 순위를 매기기 위한 단순 도구 이상의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저는 수능 문제의 질적 변화 없이 수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EBS 문제 변형한 5지선다형의 단순암기 문제 풀이가 우리 교육을 옥죄는 손오공의 ‘금고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능을 유지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대입정책 최대의 공적은 3년 예고제 도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고교 선택의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하고 있는 학생 선택의 교육과정은 2002부터 출발했다고 보는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교 학점제 구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 3년 예고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5년짜리 정권에 따른 잦은 정책 변경을 극복하기 위해 3년 예고제를 6년(또는 10년, 12년) 사전예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크게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급진적 대입제도 변화를 추구했던 정권들의 대입제도 개편 일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 2002 대입제도 개편 일정

일시	내용
1998.3.	이해찬 장관 취임
1998.7.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발족(대통령 자문기구)
1998.10	2002 대입제도 개편안
1999.3.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발표(1999. 3)
1999.8.	새대입제도 준비단구성
2000.4.	‘2002학년도 수능등급제’ 시행 발표
2000.12.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발표

나. 2008 대입제도 개편 일정

일시	내용
03.12.16.	대통령주재 토론, 교육혁신위원회 주관으로 2008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지시
04.1.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에서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각계 의견 수렴
04.8.	대통령주재 국정과제 회의에 대입제도 개선안 정부안 최종 확정
04.8-9.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단위의 공청회 개최
04.10.28.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방안 확정 발표(주요 핵심 내용) - 내신성적의 변별력과 신뢰도를 높여 학생부 반영비중 대폭 확대 - 수능 9등급제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대입에서의 결정력 축소 - 대학 및 모집단위별로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모형 개발을 유도하고 입학사정관제 도입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을 특성화 및 전문화 꾀함. - 대학 측이 반발하며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3불정책’의 폐지를 요구
05.6.	서울대 2008 대입제도 논술고사 강화 방안 발표, 본고사 여부 관련 논란
05.12.26.	주요 사립대 수시 1학기 폐지 및 학생부·수능반영률 축소, 대학별 고사 강화 발표
05.12.27.	교육부 2008 대입전형시 학생부 반영 비중을 높여줄 것을 권고
06.5.2.	24개 대학 입학처장 공동성명 발표: 학생부 50% 이상 반영, 논술고사 최소화

일시	내용
07.3.20.	주요 사립대 2008학년도 입시전형계획(입시요강) 발표, - 상위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의 비중을 강화: 고려대가 정시모집 인원의 31%, 성균관대 24.2%, 연세대 16.8%를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
07.3.22.	김신일 교육부총리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과 관련한 대국민 서한문’ 발표하여 반대 표명
07.4.5.	김신일 교육부총리 “2008 대입제도 정착” 대국민 직접 홍보
07.4.6.	서울대 학생부 1~2등급 동점처리 계획 발표
07.4.6.	노무현 대통령, EBS 3불 정책 특별강연 :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
07.6.12.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부 1~4등급 동점처리 방안 검토 발표
07.6.15	교육부, 내신실질반영률 축소 대학에 정부지원사업 전면 중단 계획 발표
07.6.	대학입학제도를 둘러싸고 대학과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당장 입시를 눈앞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고조
07.6.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을 모아 놓고 내신반영비율을 준수하라고 요구
07.7.	고등교육 1조원 투자 확대를 발표 - 입시 당근 정책 시작 -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각종 신규사업을 구상

다. 2022 대입제도 개편 일정

일시	내용
2015.9.23	2015개정교육과정 고시 ‘문·이과 통합’
2016.3.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수능 개선위 구성
2017.5.10	수능절대평가 내건 문제인 정부 출범
2017.7.5	수능절대평가 주장하는 김상곤 부총리 취임
2017.8.10	수능 개편 시안 발표
2017.8.11-21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4차례)
2017.8.31	수능 개편안 확정 1년 연기
2017.11.	교육부 소통 플랫폼, ‘온-교육’ 의견 수렴
2017.11.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 구성·운영

일시	내용
2017.12.	대입제도 개편방안 정책연구 (연구책임자 : 서울대 김경범)
2017.12.12	현장 소통과 공론화를 위한 대입정책포럼 구성 및 1차 회의
2017.12.28	문재인대통령 대입개편안 ‘단순’ ‘공정’ 키워드 제시(국가교육회의 위촉식)
2018.1.	대입제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자문
2018.1.24	현장 소통과 공론화를 위한 2차 대입정책 포럼(대입 단순화)
2018.2.8	현장 소통과 공론화를 위한 3차 대입정책 포럼(학생부 개선)
2018.2.23	현장 소통과 공론화를 위한 3차 대입정책 포럼(공정성 관련)
2018.4.11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 발표
2018.4.11	교육부 시안 확정 및 국가교육회의 이송 8월 중 최종안 발표
2018.4.16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발표
2018.4.26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진경)
2018.4.30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발족(위원장 김영란)
2018.5.3-17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
2018.5.31	공론화 범위 결정
2018.6.20	공론화 의제 선정(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 협의)
2018.6.15-7.8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16월 15일-7.8일까지)-->7.12 권고안 마련
2018.6.29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번위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 개최
2018.7.10	시민참여단 구성(550명)
2018.7.12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결과 발표
2018.7.13	대입전형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
2018.7.14-15	제1차 숙의 토론회 개최
2018.7.27-29	제2차 합숙 토의
2018.8.3	공론화 결과 발표
2018.8.6	국가 교육회의 전체회의 개최
2018.8.7	대입제도 개편 최종 권고안 발표(국가교육회의)
2018.8.17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교육부)

3개 정권의 공통점은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시안부터 확정까지 2002대입제도 개편이 1년 6개월, 2008이 2개월, 2022가 4개월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집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업적 쌓기에 급급한 조악한 개악에 그쳐 입시에 큰 혼란만을 초래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정권도 이런 비난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공청회도 이미 잘 짜여진 각본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02 대입제도 개편과정에서도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요구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2018.4.12. 제출)에 ‘선발 방법의 균형(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범위를 결정한 발표(2018.5.31.)에는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라고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9대입을 기준으로 전체 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능전형 19.9%, 학생부종합전형 24.3%이나 학생부위주전형은 65.7%였습니다. 20:24를 20:66으로 그 뒤 각종 자료에서 수시:정시 비율인 76:24비율로 표기하여 심한 불균형 상황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줄이고 수능위주전형은 늘리겠다는 것이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방향이 결정된 형식적 공청회를 국민의 여론인양 왜곡할 수밖에 없는 정책은 함량 미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정권에 따라 색깔내기, 생색내기 대입정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부추겨 사교육시장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고,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되도록 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되어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양교수님의 6년 예고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수능 도입과정을 보면 왜 수능이 수많은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27년째 실시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 기관에서의 교육적 검토를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된 대입제도만이 현 대입정책의 혼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6년 아니 그 이상의 예고제를 통하여 급조된 정책 남발로 인한 수험생과 공교육의 혼란,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 사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 예고제에도 대학들이나 교육부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올 해 수험생이 6만 여 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수능 응시자가 지난 해 대비 약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지 않고 예고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진 수능최저기준 때문에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의 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인데 6년 예고제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 수능 도입 과정이 주는 교훈

시기	내용
1985. 3.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
1985.9.5.	교육개혁심의회 대입제도개선안 ‘각 대학별로 독자적이고 자율인 전형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로 학생을 선발’
1986.7.	대입제도 개선방안 ○ 대입학력고사를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전환한다. ○ 적성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대학 지원을 허용하여 적성시험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 그리고 대학별 평가 성적 등을 합쳐 입학적격자를 선발한다. (단, 대학별 평가는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되어야 한다.) ○ 각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살리도록 계열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지정, 예시하거나 과목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1987.12.	제13대 대통령 선거공약(대학입시제도 개선) 문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의뢰
1989.5.	대교협 1차년도 연구 마무리
1989.8.30.	제1차 공청회 개최
1989.12.8.	중앙교육심의회(문교부 장관 자문기구) 전체 회의에서 대학 입학시험제도 개선안 심의 의결
1989.12.27.	교육정책자문회의(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중앙교육심의회 개선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1989.	대학교육적성시험의 문제 모형 발표 : 성격이 지능검사와 혼동되고 모호하다는 논란
1990.2.7.	문교부, 검토의견 반영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조정안을 중앙교육심의회에 재심 의뢰
1990.4.28.	대입제도 최종 개선안에서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 정의
1990.12.19.	대학교육 적성시험 문항개발 모형 설정 후 제1차 실험평가 실시, 이후 1992년 11월까지 총 7회 실험평가 실시
1991.4.2	교육부에서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최종 확정 발표. ‘대학교육 적성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명칭 변경
1993.1.9.	대학수학능력시험은 4개 영역(언어, 수리Ⅰ, 수리Ⅱ, 외국어), 190개 문항, 200점 만점의 5지 선다형으로 그 양식이 확정
1993.2.10.	교육부, 94학년도부터 적용될 새 대학 입학시험제도 기본 계획 확정 발표

주제 발표 3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문승태 (순천대학교 교수)

제48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2019. 6. 5.(수)

순천대학교
문 승 태

목차

- I. 서론
- II.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 III. 진로교육 인프라의 성과와 한계
- IV. 진로교육 인프라 혁신 방안
- V. 논의 및 정책적 함의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I. 서론

- ✓ 진로교육은 현명한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을 통해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의 과정 (장석민, 2011)



- ✓ [협의] 학교 건물이나 교실, 설비, 각종 교육용 기자재 등의 하드웨어적 부분과 교육목표, 내용, 교사, 제도, 정책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개념
- ✓ [거시적] 국가 교육제도, 교육기간 조직, 학제 등을 말하는데 정보사회가 되면서 각종 정보통신 매체와 전자적 네트워크의 구성도 이에 포함

✓ 진로교육 인프라 구분 (정윤경, 2014)

- 법·적 제도적 인프라
- 인적 인프라
- 물적 인프라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 진로교육정책 평가의 범주에는 진로교육의 목표, 내용, 나아가 방법은 어떠한가? (김봉환, 2017)
- “성공은 수년간의 지속적인 열정과 끈기의 결심이다” (앤절러 더크워스, 2016)
- “우리에게 ‘인지적 유연성’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의 전략을 바꾸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재승, 2018)
-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진로탐색 활동의 강조는 “졸업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의 고민과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이지연, 2015)

✓ 청소년 진로교육 내용 형식 다 바꾸자

(국민일보, 2018. 2. 25, 송병국)

학교교육에서 교과활동의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질 높은 경험과 체험중심의 비 교과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유학년제가 진정한 진로 체험학습이 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늘리고 사회적 협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학교나 교육부를 떠나서 여urga족부와 협력 필요**

✓ ‘진로교육’.... 교육개혁의 출발점 (머니투데이, 2017. 5. 10, 문승태)

- 1)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 해결능력 키워주는 교육
- 2) 심미적 감수성을 갖춘 정서 교육 필요하다.
- 3) 진로교육은 평생교육적 차원이 필요하다.

- ✓ 진로교육은 학습동기 고취, 자발성 신장, 나아가 모든 교육의 출발점
- ✓ 생애 차원의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개인의 적성과 흥미,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위계성, 연계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 필요

결국 진로교육 인프라는 :

- 미래사회변화 이해, 진로교육 지원 체제 마련, 진로교육 및 상담을 위한 면대면 지원뿐만 아니라
- 커리어넷의 플랫폼화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지자체와 국가, 학교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포함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II.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1. 변화의 시대와 새로운 미래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제국주의	자본주의	협업적 공유 사회	초 연결, 초 지능적 사회
특징	Waster/Steam Mechanical Production (기계혁명)	Electricity Mass Production Division of Labour (에너지혁명)	Electronics IT, Automated Production (디지털혁명)	Blurring the physical and the virtual divide 'Data-Driven' (기술융합)
시기	1836	1966	1996	2016
영향	- 수공업 시대에서 중기 기관을 활용한 기계화 시대로 전환 - 영국의 섬유공업 거대 산업화	- 상업용발전기 -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 출현으로 대량 생산 체계 구축	- 인터넷 - 정보의 생성, 가공,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시대 개막 -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 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기업 부상	- 사람,사물,공간을 연결 - 자동화, 지능화 - 산업구조 및 사회 시스템 혁신 -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영역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
대표	Arnold Toynbee	David Landes	Jeremy Rifkin	Klaus Schwab

출처: 김상윤. 2016.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 '소프트 파워' POSRI 이슈리포트

1. 변화의 시대와 새로운 미래

컴퓨터화(computerization)로 향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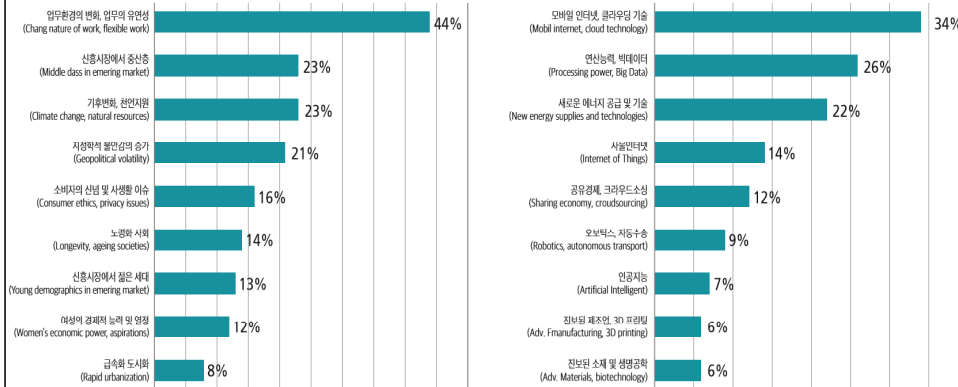
* 가능성이 1에 가까울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직업	가능성	직업	가능성	직업	가능성
보험설계사	0.99	치위생사	0.68	배우	0.37
요리사	0.96	사서	0.65	영상편집	0.31
회계사	0.94	상하수도 기사	0.61	지리학자	0.25
제조업 생산직	0.92	도로/철도 경찰	0.57	설문연구원	0.23
택시기사	0.89	보조교사	0.56	광고전문가	0.18
핵 기술자	0.85	신발/가죽 수리	0.52	소방관	0.17
철강 근로자	0.83	컴퓨터 프로그래머	0.48	관제사	0.11
속기사	0.81	화재 조사관	0.48	그래픽 디자이너	0.082
방송기술자	0.74	경제학자	0.43	레크리에이션 테라피스트	0.028

Carl Frey, Michael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pp.61-77

1. 변화의 시대와 새로운 미래

「The Future of Jobs」: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



<사회-경제학적 주요 변화동인>

<기술적 주요 변화동인>

The Future of Jobs(WEF, 2016) 재구성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8

1. 변화의 시대와 새로운 미래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쟁점

**교육과정과 내용의 재정의, 개방형 플랫폼 기반 교육 시스템의 개편,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의 등장, 공동체 중심의 협력 학습**

미래사회 진로교육의 방향(김미숙, 2009; 김은석, 2017; 문승태, 2017; 이찬승, 2017; 송병국, 2017; 정윤경, 2017; 진미석, 2017; 문승태, 2017; Lant and Brown, 2013; Savickas, 1997, 2002, 2005, 2013)

2.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교육

2.1. 진로교육 대상을 유치원에서 성인 및 노인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생애 동안 4~4번의 직업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학령인구 감소 및 연령별 생산가능인구는 청년층과 중년층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층 비중은 크게 확대되고 노후를 위한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필요하다(정윤경, 2017)

<장래 학령인구의 변화 전망>

◦ 2035년까지 유.초.중.고 학령 인구는 큰 폭 감소 예상

- '17년 : 7,183천명 → '35년 : 4,881천명
- 유치원 학령인구(3-5세)는 2017년 139만명, 2030년 99만명으로 2017년 대비 71% 수준
-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17년 272만명, 2030년 180만명으로 2017년 대비 66% 수준
-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2017년 138만명, 2030년 114만명으로 2017년 대비 83% 수준
-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는 2017년 172만명, 2030년 132만명으로 2017년의 77% 수준

2.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교육

2.2. 모든 국민이 미래 불확실한 사회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유연성, 창의성, 진로적응성, 진로탄력성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 미래사회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역량(Competency) 중심의 사회로, 스스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개인역량과 집단간의 협업할 수 있는 협업 능력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상은 창의성, 디지털 사고, 가치 지향, 전문가의 협업능력이다. (신동엽 외, 2018)
- '2015 개정 교육과정'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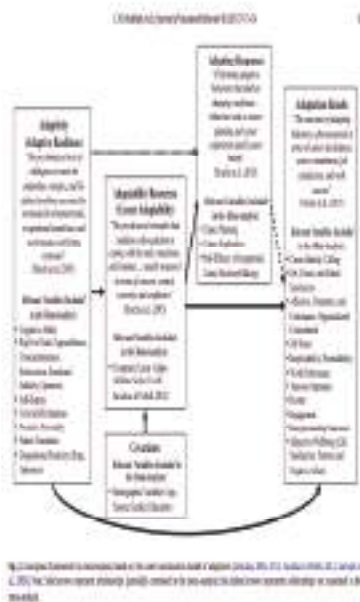
2.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교육

〈인재상의 변화〉

	AS-IS	TO-BE
요구 역량	정해진 일에 대한 성실성	다양한 변화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창의성)
사고 방식	아날로그적 사고	디지털 사고 (디지털 리터러시)
행동 목표	효율성	가치 지향
전문성과 협업	좁은 범위와 전문적 능력	전문가 간의 협업 능력

출처: 신동엽 외. 2018. 4차 산업혁명, 일과 경영을 바꾼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교육



- ✓ **진로적응성** 및 **탄력성**은 **사회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문화와 사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와 직업세계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는 전략과 능력에 맞춘 학교내 진로발달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
(Brown & Lent, 2016; Savickas, 2013).
- ✓ **진로적응성**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나 직업에서 만족하면서 주어진 과업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concern),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control), 자신과 직업환경이 서로 적합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curiosity), 미래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다고 믿는 확신(confidence)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진로탄력성은 역경을 전제로 실직이나 보직 변경 등과 같은 직업 관련한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조절 능력의 활용을 포괄하는 기능적 대처를 의미한다
(유현실, 2013)

2.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교육

2.3.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게

성격, 진로교육 내용, 방법 등을 변화시켜야 한다.

- ✓ 국가의 진로교육정책의 기본성격은 진로교육의 공공성, 진로교육의 포용성, 진로교육의 전 주기성, 개인맞춤형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전문성, 유비쿼터스 진로교육의 실현, 진로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송병국, 2017)
- ✓ 진로교육 전달 방식도 혼합형식(Blended Learning), 크로스오버 러닝(Cross Over Learning),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게임 (Game & Gamification), 스토리텔링 학습(Storytelling Learning) 등 학생들이 교육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직접 만들고 창작하는 학습으로 변화시키는 실천 학습 강조(이지연, 2017)

2.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교육



2.4. 평생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된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 ✓ 학교가 지역사회를 학습생태계로 활용하기 위한 허브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기관, 기업, 시설, 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체제 필요
- ✓ 호주의 디자인 허브, 핀란드의 TET-tori, 뉴욕시의 아이 존 등

출처 : 교육부, 2015. 교육부 내부자료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Ⅲ. 진로교육 인프라의 성과와 한계

1. 진로교육정책의 주요 변화

시기	주요 정책	세부 내용
1982-1989	한국교육개발원,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사업 시작	· 초·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연구개발
1990	각시도 교육원에 '진로교육부' 설치	· 학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실시
1993	한국진로교육학회 창립	· 김충기 초대
1994	단위 학교에 진로상담부 설치	
1998	진로정보센터신설	· 커리어넷
2002	제7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에 '진로와 직업' 선택 과목 신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도 '진로와 직업' 배부(2003)
2009	2009개정교육과정	· 집중이수제, 학습부담 적정화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활동 전개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진로집중과정 운영: 교육과정 재구조화로 선택과목 수준별·영역별 세분화 · 국가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포함 - 교과통합 진로교육 등의 진로교육 활성화 시작 · 비교과 창의로운 체험활동 안에 진로활동 포함

1. 진로교육정책의 주요 변화

시기	주요 정책	세부 내용
2010. 2	「진로교육 종합계획(2009-2013)」 수립	· 3개 부처 (교과부, 복지부, 노동부)공동발표 -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2011	진로전담교사 배치 시행	· 진로교육의 질적 수준을 신장하는 계기 마련 (95.56%)
2012. 4. (교과부)	학교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마련	· 국가수준에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초 · 중등 학교급 별 및 학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발
2013. 2. (교육부)	2013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정부의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다양한 진로교육 요구의 수요 증대를 추구
2015. 6.	진로교육법 제정	· 진로교육의 법적 기초 수립 (2016.12.23시행)
2016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중학생의 보편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1. 진로교육정책의 주요 변화

시기	주요 정책	세부 내용
2016. 4.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2016~2020)	<국무회의의 안건 발표> ·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도입 · 진로교육 대상 확대(사회적배려대상자, 대학생 등) · 진로체험 활성화 및 다양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2017. 1	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	· 국가수준의 R&D 강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정 및 위탁 운영
2017. 2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확대 운영 · 진로교육 대상 확대 · 진로체험 지원 풍토 · 조성(공공, 민간)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 운영 등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2019. 2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출범	· 20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적용 확대 대비 추진 동력 강화

출처: 이지원,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정책과 진로교육의 방향

2.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법령 및 후속 정책

2.1. 진로교육법령(내용구조)

구분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시행령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1조(목적)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제2장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제9조(진로전담교사) 제10조(진로심리검사) 제11조(진로상담)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제4조(진로전담교사)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제2조(진로전담교사)

2.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법령 및 후속 정책

2.1. 진로교육법령(내용구조)

구분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시행령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제4장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제23조(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8조(진로체험 지원)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10조(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운영 등) 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2.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법령 및 후속 정책

2.2.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정책

시기	주요 정책	내용
2015. 6	진로교육법 제정	진로교육법 제정(2016. 12. 23시행)
2016. 1	제2차 진로교육5개년 계획 (2016~2020)	(국무회의의 안건 발표; 2016. 4. 5) ·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도입 · 진로교육대상확대(사회적배려대상자, 대학생 등) · 진로체험활성화 및 다양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2017. 1	국가진로교육센터설치	(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 2017. 2. 13) ·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R & D 강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정 및 위탁 운영

2.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법령 및 후속 정책

2.2.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정책

시기	주요 정책	내용
2015. 6	진로교육법 제정	진로교육법 제정(2016. 12. 23시행)
2016. 1	제2차 진로교육5개년 계획 (2016~2020)	(국무회의의 안건 발표; 2016. 4. 5) ·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도입 · 진로교육대상확대(사회적배려대상자, 대학생 등) · 진로체험활성화 및 다양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2017. 1	국가진로교육센터설치	(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 2017. 2. 13) ·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R & D 강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정 및 위탁 운영

3.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협력 및 지원 체제

3.1. 정부부처별 진로교육 관련 정책 협의체

명칭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협의회의	청소년 정책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
소속 (근거법)	교육부 (없음)	여성 가족부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여성 가족부 (학교밖청소년법 제7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법 제4조)
출범	2015.5.	2015.12.	2015.8.	2015.5.
목적	협의	심의 · 조정	심의	심의 · 평가
기능	· 중앙정부, 자치단체, 산하 ·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학생 체험활동 사업 연계 · 조정 ·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 운영 내실화	·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청소년정책이 분야별주요사업에관한사항 · 청소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정책의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 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청년고용 대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산 · 학 · 관 협력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성	정부, 지자체,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사업주단체, 학교

출처: 윤형한. 정지은. 2018. 정부 부처별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개선과제. 기본 연구 2018-3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협력 및 지원 체제

3.2. 진로교육 관련 세부 과제 현황 및 소관 부처

구분	세부 과제 명	과제 소관 부처
대상별 맞춤형 진로 활동 내실화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등 초·중등 학생 대상 진로활동 확대	교육부, 과기정통부, 여가부
	진로탐색·개발·취업을 연계한 대학생 진로 활동 실시	교육부, 고용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확대 실시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형평성 제고	교육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	여가부,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 이룸학교' 운영 활성화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을 취·창업 기반 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	여가부, 문체부, 중소벤처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강화	여가부, 교육부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	여가부, 교육부, 전부처

3.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협력 및 지원 체제

3.2. 진로교육 관련 세부 과제 현황 및 소관 부처

구분	세부 과제명	과제 소관 부처
청소년(청년)취업 지원 기반 강화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여가부, 교육부
	청소년(청년) 고용의 문제, 중소기업 청소년(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도입	고용부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체계적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내실화	교육부, 고용부, 중소벤처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 자생력 제고	과기정통부, 금융위, 중소벤처부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중소벤처부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3.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협력 및 지원 체제

3.3. 국가진로교육센터

✓ 근거: 진로교육법 제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 2017년 2월 13일 개소식)

✓ 역할 및 조직

- 국가진로교육센터는 3개의 하위조직을 두어 국가진로교육 정책 연구 및 자료개발, 국가진로 정보제공, 진로상담 및 단위학교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킹을 담당한다.
- 단기적으로는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연구와 자료개발, 진로교육현황조사, 대학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진로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 등을 추진 중장기적으로 초·중·고등교육까지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나아가 평생학습자*까지 `진로설계를 지원

* 직업전환자, 은퇴 후 생애 재설계 자 등

3.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협력 및 지원 체제

3.4. 진로교육협의회

- ✓목적: 초·중등 학생들의 내실 있는 진로체험을 위해 중앙부처를 포함한
관계 기관 간 진로교육(체험) 관련 현황 공유 및 이슈 논의
- (교육부) 차관(위원장), 평생미래교육국장, 교육과정정책관 등
 - (정부) 부·처·청·위원회 실·국장
 - (지자체 및 민간 등)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한상의,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 ✓추진현황: '15.3월~'19.2월 / 11회 운영
※ '18.12월부터 '진로교육 협의회' 로 확대 추진

4.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주요 정책 및 사업 내용

4.1. 정부 부처의 2018년 진로교육 관련 정책·사업 목표

구분	진로교육 역량강화	진로교육 운영지원	진로교육 인프라구축	소외계층 진로교육 확대	기타	전체
교육부	4(17.4)	6(26.1)	8(34.8)	5(21.7)	0(0.0)	23(100.0)
이외 부처	0(0.0)	0(0.0)	0(0.0)	4(15.4)	22(84.6)	26(100.0)
전체 부처	4(8.2)	6(12.2)	8(16.3)	9(18.4)	22(44.9)	49(100.0)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8.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유형환. 정지은 2018. 재인용

4.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주요 정책 및 사업 내용

4.2. 정부부처의 2018년 진로교육 관련 정책 · 사업 대상

구분	교육부	이외 정부부처	전체	구분	교육부	이외 정부부처	전체
전체	18(78.3)	11(42.3)	29(59.2)	장애학생	1(4.3)	0(0.0)	1(2.0)
근로청소년	0(0.0)	1(3.8)	1(2.0)	저소득층청소년	1(4.3)	2(7.7)	3(6.1)
미취업청년	0(0.0)	5(19.2)	5(10.2)	소외지역학생	2(8.7)	0(0.0)	2(4.1)
다문화청소년	1(4.3)	1(3.8)	2(4.1)	위기청소년	0(0.0)	2(7.7)	2(4.1)
탈북 청소년	0(0.0)	1(3.8)	1(2.0)	학교 밖 청소년	0(0.0)	3(11.5)	3(6.1)

* 진로교육정책 ·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교육부와 이외 정부부처에서는 학생,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순

5.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진로정보

5.1.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1998.8)에 의거 진로 · 정보센터 설치

- 커리어 넷 : 누구에게나 온라인으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직업학과 정보 진로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전산망('99. 2월 개통; 한국직업정보원 운영)
- 워크넷 : 인터넷으로 구인, 구직자에게 일자리, 일자리 정보, 고용동향 등 각종 취업 정보와 신청, 접수 등 서비스 제공('99. 4월 개통;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 크레존 : 학생 체험 및 인성 자료 정보 제공('2010. 개통; 한국과학창의재단)

5.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진로정보

5.2.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시스템 운영

✓ 체험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 및 단위학교의 효율적 활용 지원(2014.8.)

< 연도별 「꿈 길」등록 체험처 및 프로그램('18. 12월 기준)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험처수 (누적)	4,309	16,438	27,627	32,736	36,808
프로그램수 (누적)	9,120	25,450	59,235	100,224	132,621

6.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처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질 관리
('16. 11월 시행; 대한상공회의소 위탁 운영)

- 인증기관은 체험처의 성격, 시설 안전성 및 쾌적성,
프로그램 우수성의 3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선정

* (1단계) 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현장심사 → (2단계) 권역별 인증심사 → (3단계)
인증위원회 운영

※ 연도별 누적 인증기관 수 : (16)공공608, 민간428 → (17)공공918, 민간800 → (18)공공1103, 민간1147

6.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꿈길」 등록 체험처 유형별 현황('18. 12월 기준)

구분	공공기관/공기업	민간기업	청소년/시민 단체	학교/대학교	개인사업자	계 (누적)
체험처수	10,350 (28.1%)	6,500 (17.7%)	2,080 (5.7%)	3,934 (10.7%)	13,944 (37.9%)	36,808 (100.0%)
프로그램수	72,695 (54.8%)	13,452 (10.1%)	4,572 (3.4%)	18,731 (14.1%)	23,161 (17.5%)	132,621 (100.0%)

구분	현장 직업 체험형	직업 실무 체험형	강연/ 대화형	학과 체험형	현장 견학형	캠프형	계 (누적)
프로그램 수	44,230 (33.4%)	26,918 (20.3%)	29,002 (21.9%)	17,590 (13.3%)	9,945 (7.5%)	4,935 (3.7%)	132,621 (100.0%)

7.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7.1. 추진 배경

- 자유학기제 시행 및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진로체험활동** 급증에 따라 진로체험 지원 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 증대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진로체험 **업무 지원, 특강 및 상담 활동,**
학생 인솔 등 진로체험지원 인력풀 구축·활용

※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진로교육법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7.2. 추진 경과

- '14년 1개 시.도 7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시범 운영(서울/자원봉사자 40명)
- '15년 4개 시.도 26개 진로체험지원센터 확대 시범 운영*
 - * 서울, 경기, 충남, 전북 / 자원봉사자 141명
-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행정자치부, (사)한국자원봉사문화 간 업무협약 체결* 및 봉사단 위촉식('16.10.18.)
- '18년 17개 시.도 90개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원봉사자* 배치
 - * 신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16회), 보수교육(4회) 실시(총 1,028명 활동)

7.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7.3. 주요 현황('18.)

< '18년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배치 자원봉사자(좋은어른) 현황('18.12월 기준)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참여센터(수)	18	12	4	2	2	4	2	1	2	4	7	5	1	18	2	4	2	90
자원봉사자(명)	131	71	23	16	41	30	8	6	20	35	21	31	18	29	18	108	39	645

< '18년 전국단위 진로멘토풀(진로사람책) 자원봉사자 현황('18.12월 기준) >

시도	금융/경제	연구/공학직	교육/법률/복지	예술/스포츠 방송	영업/생산기타	합계
자원봉사자(명)	63	17	125	17	161	383

8.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체험센터 운영

- ✓ 추진 목적 : 창업체험교육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
- ✓ 주요 내용 : 지역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센터 운영 지원
- ✓ 운영 방법 :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지역별로 선정·운영되므로 주제 등이 확정되지 않음

<'19년 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센터 수	4	1	2	2	-	1	1	1	4	1	1	1	2	1	1	2	1	26

9.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9.1. 운영 개요

-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 및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정책 추진에 따라 **단위학교의 진로체험 수요 급증**
- 개별 학교단위의 체험처 확보만으로는 체험 수요 충족이 어렵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필요**
-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진로교육(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 마련**

9.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9.2. 운영 현황

- (역할)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 * 체험처 발굴·관리, 체험처-학교 간 프로그램 매칭,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진로체험지원 인력 관리 등
 -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현황) 17개 시·도에서 225개 센터 운영 중
- (운영 형태) 위탁운영 139개, 지자체직영 17개, 교육청직영 69개

< 시·도별 운영 현황('18.12.1.)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운영중	25	16	4	13	5	4	5	1	31	18	10	14	14	22	23	18	2	225

10.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진로상담(온·오프라인)

- ✓ 근거: 진로교육법 제11조(진로상담)
 -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 ✓ 현황
 - 온·오프라인 진로상담 실시(온라인은 커리어넷 이용)
 - 사회적 배려자 및 특수 매뉴얼 진로상담 매뉴얼 보급

11.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의 변화, 성과 및 한계점

11.1. 진로교육 현황 조사의 변화

- ✓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해 실시하고,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예, 초중고생, 대학생 및 교직원,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다문화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 ✓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교육부 또는 국가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

구분	진로교육법 이전	진로교육법 이후
조사대상	초중등교육기관	초중등교육 기관, 고등교육 기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관, 국가 및 지자체, 기관
조사범위	학교관계자 : 학생, 학부모, 학교, 교사 등	학교 관계자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기관 관계자 : 각 기관 관리자 및 진로교육 담당자 사업 관계자 : 진로교육 관련 사업 담당자 및 관계자
피조사자의 자료제공	협조	의무
방법	표본조사, (필요시) 전수 조사	좌동
목표	국가차원 정책과정 도출에 활용	국가진로교육 정책 수립 및 진로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11.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의 변화, 성과 및 한계점

11.2. 법·제도 시행으로 나타난 성과

- ✓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진로교육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방향 제시, 학교 진로교육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학교의 진로교육 교육과정 및 교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진로 교육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기반 조성
- ✓ 진로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진로체험의 양적 확대
- ✓ 진로교육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와 지역협력체제 구축

11.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의 변화, 성과 및 한계점

11.3. 한계점에 대한 질문

- ✓ 현재 진로교육 인프라는 초·중·고 중심으로만 구축된 것은 아닌지?
- ✓ 진로교육 인프라 관련 조사는 공급자의 입장인 정부중심으로 설계된 것은 아닌지?
- ✓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진로진학상담교사 질적 논쟁 등 진로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진로 정보 및 콘텐츠 등이 대상별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이 되고 있는지?
- ✓ 진로교육 인프라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 ✓ 진로교육 인프라가 진로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Ⅳ. 진로교육 인프라 혁신 방안

1. 진로교육 인프라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진로교육법의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과제

[정철영, 2016, 내일신문 11. 22; 송병국, 2015]

- 의미: '청소년들이 저마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향후과제: 진로교육법의 수정 요구(개정의 필요성)
 - 1)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
 - 2) 사회적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
 - 3) 학생들 스스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
 - 4)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5) 대상의 확대 - 국가 평생 진로교육으로서 법령 역할 필요.
 - 6) 대학진로교육 보완

1. 진로교육 인프라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진로교육정책의 향후 과제 [이지연, 2017]

-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기초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 설계, 평가
- 생애 전반의 모든 시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전환역량을 강조하면서 국가교육과정, 대학커리큘럼,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에서 학교와 공공고용 서비스 기관이 협력

1. 진로교육 인프라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구분	Before	After
진로교육 행정 정책	- 지엽적, 부수적, 추가적 업무 - 이벤트성 정부부처 및 기관의 정책으로 이용 - 국가정권 변화에 민감한 반응	- 핵심적 중심적 업무 - 중거 기반의 정책수립-모니터링-실천의 장기적 추진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 중등학교 학생모 (공급자) 진로전담교사	(수요자) 모든 국민 대상 (공급자)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교과교사, 교수, 지역사회 모든 이해관계자 등
진로교육 제공시기	- 진학 및 취업의 결정 시기 - 진로문제 발생 시기	- 생애 단계별 생애 전반 시기 - 사후대처 보다는 예방적 관점
진로교육 콘텐츠	- 일반 주류 초중등학생 중심의 정보 제공 (자기이해, 직업정보, 진학 정보 등)과 선택 강조 - 교육과 노동시장 정보의 괴리 존재	- 사회적 배려 대상 중심으로 전환 - 개인 맞춤 진로 설계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 삶의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는 콘텐츠 - 유연한 '전환' 역량 강조 - 신뢰성 높은 진로 정보 생성/관리
진로교육 제공방법	- 정책 기반 - 중앙관리 -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커리큘럼 밖에서 수행 - 규제되지 않음	- 수요자 요구에 기초한 서비스 기반 - 분권화된 서비스, 중앙 관리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의 특성화 강조 - 국가 교육 과정, 대학 커리큘럼, 평생학습 플랫폼 안 등 서비스 제공의 '표준', '기준' 설정 - 새로운 ICT적 활용 등

출처: 이지연.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정책과 진로교육의 방향

2. 진로교육 인프라의 미래와 혁신 방향

✓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 중심으로(경험 중심)**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2,707)

	교양			전문			t
	이론분야		교양	이론분야		전문	
	점수	비율	점수	점수	비율	점수	
전체	2,785	0.54		42,008	1,450	3.55	24.48**
남학생	1,617	0.53	0.69	1,155	361	3.11	3.97
여학생	1,168	0.54	0.00*	2,793	891	3.23	2.78*
학부생	248	0.11	0.73**	32,806	186	0.10	31.77**
대학원생	2,537	0.13	0.24**	39,004	2,163	0.11	17.88**
교양					890	3.09	18.7*
전문					890	3.09	13.7**
이론분야					526	3.25	3.44
전문분야					632	3.08	3.41
F	131.885**				115.39	**	
p	.000				.000		
이론분야	250				402		
p	.000				.000		

*** p<0.01, ** p<0.05, * p<0.05

송인발, 강혜영(2016.8),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p.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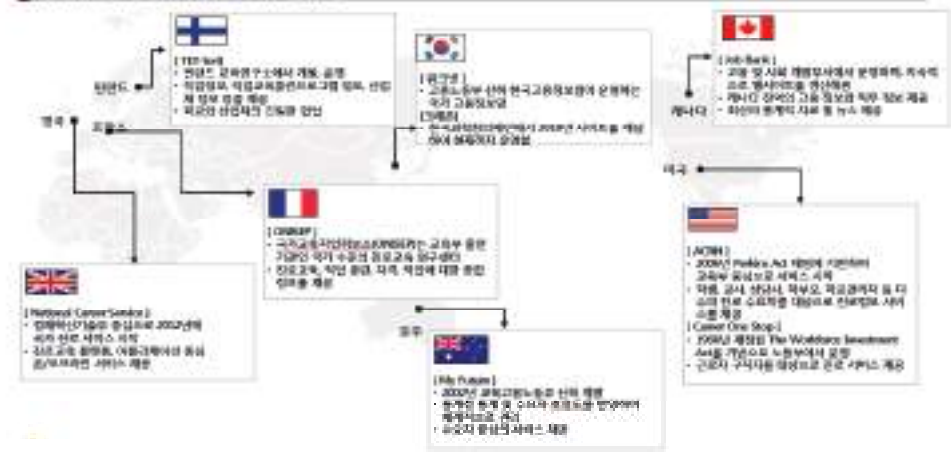
- ✓ (모형1)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 '거주지역', '부모와의 대화', '교과성적'
- ✓ (모형2)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은 '진로심리검사 > 진로체험 > '진로와 직업' 수업'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학생 진로개발역량의 12.4%를 설명

2. 진로교육 인프라의 미래와 혁신 방향

선진사례 분석 개요

해외 진로정보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자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의 진로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내 사례는 워크넷과 크레딧을 분석함

진로정보서비스 분석 대상 국가 및 기관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국가진로교육 정보화전략 계획 보고서

2. 진로교육 인프라의 미래와 혁신 방향

해외사례 분석 결과 요약

해외 진로정보망 사례 조사 결과,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방법, 연계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상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호주로 파악됨

구 분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대 상	초 등					
	중 등	○	○	○		○
	고 등	○	○	○		○
	대 학	○	○	○	○	
	성 인	○	○	○	○	
	교 사		○	○		○
	학부모		○			○
	전문가		○	○		
	기 업		○	○	○	○
	사회적 배려	○	○	○	○	○
내 용	• 교육, 일 기반 훈련과 고등교육을 위한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	• 서비스 대상에 따라 어려움대선 여러 개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	• 국가 진로 개발 지침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별 진로 정보를 제공	• 산업분야별, 수준별 직업정보를 AQF 기준으로 제공하여 진로계획을 수립 지원	• 교육과 직업의 연계, 직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 자격 요건 연계로 교육과 직업 연계강조	• 직업정보, 중등단계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 산업체 정보 등을 제공
방 법	• 노동시장정보 인프라가 운영 및 관리기관간 다양한 정보 온-오프라인 연계	• ONISEP 온라인 및 어려움대선 서비스 제공	• ACRN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PCRN 등 다양한 Link 제공	• 매체 특성에 따른 콘텐츠 및 정보 차별화로 채널 실효성을 높임	• 통계청과 연계해 산업별, 고용자 수, 평균 임금 등 통계 정보 연계	• 학생, 학부모, 산업체, 학교 상담교사 등 각 주체간 학생의 교육 및 삶에 대한 정보 공유
연 계	• N/A	• N/A	• N/A	• 수요자 Profile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진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	• N/A	• N/A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국가진로교육 정보화전략 계획 보고서

2. 진로교육 인프라의 미래와 혁신 방향

✓ 진로탐색 학기제 모형(국외사례)

국가	제도	특성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Transitional year)	대다수의 학교가 학교장의 판단아래 중등학교 6학년(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자유롭게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넓은 의미의 학습을 하도록 함. 관심있는 영역에 대한 2주간의 직업체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모색을 하는 기간을 갖게 됨.
덴마크	가교학년제 (Bridge year: 10학년제)	의무교육 9학년 이후 선택형으로 10학년제를 둠. 11학년부터 고등학교가 시작되며 인문계열이나 직업계열로 진학하게 됨. 10학년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거나 부족한 기초역량을 보완. 40% 정도의 학생이 10학년을 선택함.
영국	Gap year	보통 3개월에서 2년 이내지만 대부분 1년 단위로 갭이어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중등교육(secondary school)이후 16-25세 사이에 이루어짐 gap year 혹은 year out이라고 칭함.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갭이어는 국내외에서 여행, 학습, 직업, 봉사활동, 레저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2. 진로교육 인프라의 미래와 혁신 방향



어떤 방향으로?

- ✓ 삶과 학습의 통합 및 비형식 교육의 중요성 증가
- ✓ 역량교육의 강화
- ✓ 프로젝트 수업 & 협력학습
- ✓ 평생학습 & 포용적 교육
- ✓ 학습자 중심 교육 & 개별화 교수학습 지향으로의 교수법변화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가?

- ✓나의 강점(지식)→**자아인식**
- ✓ 의사결정능력→**협상능력**
- ✓ 동아리→**소통능력, 협업능력**

- ✓ 포용과 이해 기반의 심리적응
- ✓책무성
- ✓사회(대인)관계 기술

진로교육 기반의 학교 교육과정

- ✓ 과정 중심의 학습과 평가체제
- ✓ 블렌디드 러닝 & 적응형 학습 (adaptive learning) 기술
- ✓ e러닝, 모바일 러닝, 게임기반 학습 & 소셜 미디어 활용 증가

2. 진로교육 인프라의 미래와 혁신 방향

✓ 학교, 교육과정, 교사 및 학습경험의 변화

	A Analog	D Digital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학교	•교실(물리적 공간) 중심	•교실(물리적 공간) 중심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 병행	•온·오프라인 공간 병행 •VR, 3D매체 등 가상공간 활용
교육과정	•1기관중심의 교육과정 참여 •교사중심 표준화 교육과정	•1기관중심의 교육과정 참여 •교사중심 표준화 교육과정 •학생유형별 맞춤형 교육과정	•복수기관의 교육과정 선택/참여 •학생유형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인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교사역할	•지식전달자(teaching)	•지식전달자(teaching) •안내자(guiding)	•촉진자(facilitating) •코치(coaching)
학습경험	•학교를 통한 직접경험 중심 (교실수업, 교과활동 등) •전통적 학위(학력) 강조	•학교 및 지역사회 등 직간접경험 중심 (인터넷강의, 지역사회체험활동 등) •전통적 학위(학력)+평생학습 경험	•물리·가상공간의 직간접경험 중심 (TED, MOOC 등 open lecture) •할수 있는 능력+평생학습 경험
진로교육	직업교육(job matching)	평생교육(lifelong)	생애교육(lifelong, happiness)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V. 논의 및 정책적 함의

미래 사회 변화 trend에 부합하고, 사회의 변화(AI)에 따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교육의 기법 요구됨

행복교육에 기여

진학 · 진로 구분

언제 · 어디서나
정보탐색기회 제공

인프라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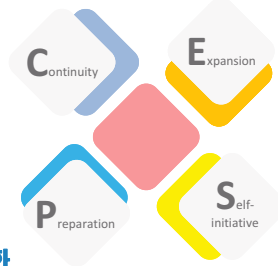
학생의 눈높이,
학생의 성장
중심으로

- 수요자 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도입 : 민간단체, 대학 등에 진로교육 개방(bottom up)
- 진로교육 인적자원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진로교육 법제 정비(자율권한 범위 규정한 진로교육 - 지역특성)
- 학교 중심의 진로교육프로그램 설계와 진로교육인프라 초 연결망 구축

01 평생진로교육 관점에서 접근(유치원에서 성인까지 확대)

초 · 중 · 고 · 대 학교급별 체계성 및 연속성을 확보

- 일-학습과의 연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 발달단계별, 영역별 다양화
- 개인의 흥미,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또는 기술, 인간관계, 자아개념,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 등과 같이 전반적인 삶에 초점



준비기간을 통한 학제간 연계강화

- Pre-자유학기제 단계의 진로개발 기초 함양을 위하여 관심과 흥미 분야 찾기 체험 실시
-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미니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활성화

진로교육 대상의 확대

- (유치원) 누리과정에 진로인식 함양을 위한 내용 추가
- (초등) 교과 속 진로교육 확대
- (중등) '진로와 직업' 교과의 안정적 채택을 위한 방안 모색
- (고등/일반)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진로교육 체계화

지자체 주도형 진로교육 확산

-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진로교육 중심 지자체(광역시, 기초) 성장모형 개발 및 확산
- 온마을 진로교육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젝트 활성화

02 진로상담 지원종합체제 구축



✓ 지역협력체제와 연계된 상담체제 구축

[학교-지자체-부처, 여가부의 청소년 상담 센터 등과 연계]

- 학교진로지도를 지원하는 인적자원, 진로플래너 간의 수직·수평적 연계로 진로·담임교사가 진로선택기 학생의 합리적 진로선택을 효과적으로 지원
- 단위학교-시·도교육청-지역 진로상담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진로상담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01

단위학교의 진로상담 인력이 상담

02

단위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 학생 및 학부모는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전문 진로상담자에게 연계

03

보다 집중적인 상담 및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내담자는 지역 진로상담 전문기관으로 연계

03 진로관계자 역량 신장 및 교사 배치 확대



✓ 교사(교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계자 역량 신장

- 학교 내에 있는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생애주기별 진로 직무연수 기회 제공
- 교원 양성기관의 교수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연수 및 교육 필수화
- 교·사대에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교과를 필수 이수하도록 교육과정 개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년원학교 등 관계자의 진로상담 연수 기회 마련
- 학교 밖에 있는 학부모 진로코치 육성

✓ 진로전담교사 배치 확대

- 진로상담을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시기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인원 확대 적극 검토
(현행 1교에 진로전담교사가 1명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학생수에 비례하여 진로전담교사 증원)

04 진로 기반 교육과정 확산



- 진로와 교과와의 결합된 인프라 제공
-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상담교사의 연계 및 통합
- 봉사활동+독서활동+진로체험의 결합을 통해서 청소년포상제 등 도입

05 진로정보 및 진로컨텐츠 다양화: 국가진로정보망 통합



- 진로교육 및 체험 관련 진로종합정보망 통합, 진로 현황 및 평가 등 진로 관련 통계와 빅데이터 구축·공유
- 진로 및 적성검사지의 개발 및 활용 지원
- 직업과 관련된 진로교육용 직업정보·진학정보의 콘텐츠 및 동영상 개발·보급

07 진로개발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 체계에 따른 진로교육 강화
- 초중고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체계 구축 및 대학과 연계
- 진단(검사)과 처치 위주(현재 관점) → 진로개발 역량 계발 위주(생애 관점)

08 학습자 주도 참여형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 다양한 학생 주도 참여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프로젝트 수업활동 강화
- 학생의 자기평가(진단) 및 진단 강화
- Gap year 방식(인턴십 활성화, 금융 및 직업체험)
- 대학차원의 학생 주도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 차원의 대상별 맞춤형 진로관리 및 자기주도적 진로교육 기회 제공

09 진로 직업적 관점에서 접근: 직업전환교육, 적응교육이 포함된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군대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성인은 직업전환 관점 접근)

- ✓ 군 복무 이후 전역한 청년들이 군복무기간 동안 계획 또는 설계한 진로목표 실천을 위해 고등교육단계 유관 기관 중심으로 진로개발 지원
 - 전역 후 자신의 진로목표 성취와 관련된 진로활동 서비스 기회 확대 지원
(예: 진로심리검사,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료 할인 등)
 - 제대군인의 전역 후 전직 지원 강화
(예: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에 군 전역 청년의 진로개발 내용 강화)

- 1) **사회적응교육**(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
- 2) **직업교육훈련**(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거나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 및 기능을 길러주는 훈련
- 3) **제대군인지원센터** : 현재 전국에 8개가 있으며,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을 위하여 진로상담, 생애 설계, 적성검사, 취창업 상담, 취업정보제공, 기업협력을 통한 취업지원, 워크숍, 사이버교육 등 운영

10 국가진로교육원 개설(안)



- 진로평가, 진로정보, 진로상담 등의 총괄
- 진로설계와 직업전환교육 총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진로영역 통합
- 전국민 대상(평생교육적 관점 접근)+진로개발 지원
- 부처간 업무 조정 필요

11 진로교육법·제도적 수정 및 보완



- 진로교육법 수정 및 보완(평생진로교육 관점으로 수정)
-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 포함
- 공공기관 평가 지표 포함
-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18. 2. 25일자, 송병국. 청소년 진로교육 내용 형식 다 바꾸자.
- 김봉환. 진로교육정책 평가와 과제. 2017. 11. 21일 발표자료.
- 김상윤. 2016. 10. 13.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 '소프트 파워' POSRI 리포트
- 김수용 · 배성아. 2014.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14(12), 429-448.
- 머니투데이, 2017. 5. 10일자, 문승태. '진로교육'... 교육개혁의 출발점
- 문승태. 2017. 진로교육역량 기반에서의 성공적인 교육-노동 이행을 위한 진로교육 서비스 개혁 촉진자 발표. The 8th ICCDPP International Symposium 2017.
- 민춘기. 2013. 대학생 진로교육 개선을 위한 해외의 정책과 운영 사례비교, *비교교육연구*, 23(4), 31-58.
- 신동엽 외. 2018. 4차 산업혁명, 일과 경영을 바꾸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앤저라 더크워스, 김미정 역. 2016. GRIT: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서울: 비즈니스북스.
-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연구*, 14(1), 423-439.
- 이지연. 2015. 한국의 기업 참여형 진로탐색 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진로교육연구*, 28(1), 79-99
- 장현진 · 류지영.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과 영향 요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재승. 2018. 열두 발자국. 서울: 에크로스. p. 312
- 정철영. 2011.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과교육연구*, 17(4), 1-30.
- 조성심, 주석진. 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 조현국. 20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초 · 중등 과학육의 과제. *초등과학교육* 36(3), 286-301.
- 한국고용정보원. 2017. 4차 산업혁명 미리 일자리 전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직업과 인력개발. 19(3) 통권 86호.
- 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Cort W. R, Kristi N. L, Ian M, K, katz, Hannes Z. 2017. *Journal of Vacation Behavior*, 102, 151-173.
- Robert W. Lent.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감사합니다.

주제 토론 3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 방안 -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

장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 방안 -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

장 혜 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발표 내용의 함의

문승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은 진로교육 인프라에 관한 개념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에 대한 조망, 그동안 구축되었던 진로교육 인프라의 성과와 한계를 주요 정책과 관련 사업, 법령, 협력 및 지원 체제, 진로정보,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체험센터 운영,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상담(온/오프라인), 진로교육법 제정 전후의 변화와 성과 및 한계점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 정리하고 있음.

또한 진로교육 인프라의 미래와 혁신 방향을 향후 과제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진로정보서비스의 내용, 방법, 연계방식에 관한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진로교육 인프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교육 기반의 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를 모형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논의 및 정책적 함의를 통해 미래 사회 변화 트렌드에 부합하고, 사회의 변화(AI 시대)에 따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교육의 기법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음. 평생진로교육 관점에서 유치원에서 성인까지로 진로교육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지역협력체제와 연계된 상담체제의 구축, 진로관계자 역량 신장 및 교사 배치 확대의 필요성, 진로 기반 교육과정 확산, 진로정보 및 진로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국가진로정보

망을 통합하는 방안, 진로개발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학습자 주도 참여형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직업전환교육, 적응교육이 포함된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국가진로교육원 개설(안), 진로교육법과 각 관련 평가지표 등 제도적 수정·보완에 이르기까지 진로교육 인프라에 있어서 현황은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책·제도적 관점에서의 폭넓은 고찰을 토대로 실질적인 운영 측면까지를 고려하여 제시해줌으로써 향후 미래의 진로교육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진로교육 인프라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토론자는 문승태 교수님의 발표 내용과 미래 진로교육 방향성에 대하여 크게 공감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이 내용이 향후 진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프라 구축 방안에 다 각도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함.

2. 추가적인 제언

“정책은 속도보다 내용이, 내용보다 방향이 우선이다.”라는 말이 있음. 미래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발제내용에 따르면, 진로교육 인프라는 법·제도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활성화화를 위한 협의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1) 법·제도적 인프라 측면

○ 중앙부처-광역단위 지자체-시도교육청 협력 체제 구축

- 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진로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진로 관련 부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 중앙단위의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 기관은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진로교육 관련 사업을 파악하여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부처별, 기관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진로자원목록 지도를 학생과 교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는 청소년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시설이 부처별로 다양하게 존재함. 교육부는 중앙 및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 이들 지원기관 및 시설들과 다양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부의 진로체험 활동 지원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지원 체제 구축

-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지원 법제 정비,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실태 파악 및 분석,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규정 및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 조항 마련 등 필요
-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우수사례 시상, 각 지역별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확대 추진
- 자치단체-교육(지원)청 간 진로교육 공동 모니터링 확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에 진로교육 성과 홍보 강화

○ 종합적인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제 운영 필요

- 국가 진로교육 정책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진로교육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추진 실적 평가 실시(진로교육법 조항 개정)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진로교육 관련 기관의 성과관리(연차 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등) 강화 필요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실적 및 성과’와 관련된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촉진

2) 인적 인프라 측면

○ 진로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인적 풀(pool) 구축

- 학생, 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요구 파악은 절차 자체가 학교 구성원 내에 직업체험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전체 교원 및 학부모의 참여를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함.
- 학부모는 학생들의 진로의식 및 직업관 형성, 진로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공감대 확보가 매우 중요함.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학부모를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진로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직업 체험 활동의 범주를 학교 밖 직업현장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의 학교 내 실험 및 실습, 강의 등을 통한 활동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
- 여러 단체,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다양한 직업인의 교육기부, 재능기부를 통한 진로교육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기부에 참여한 기업, 외부 인사, 학부모,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관련 인력을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맞춤형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연구학교, 연구회 등을 통해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함.
- 현장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진로교육지도(SCEM)을 제작하고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인력을 양성·배치함.
- 학교 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경험 축적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강의, 워크숍, 진로관련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 강화, 학습조직을 지원하며, 학교 밖에서의 진로교육지원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원의 진로교육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끌어낼 수 있음.
- 직업인 멘토를 구하기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멘토 풀(pool)을 구축하고 화상 진로멘토링을 추진해나가며, 진로탐색캠프 등을 통해 오프라인 진로체험 기회도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할 필요 있음.

3) 물질 인프라 측면

○ 양질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 필요

- 학교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진로체험 활동을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 조사 및 수요자 요구분석 등을 바탕으로 학교별, 지역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의 범위와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함.
- 교과 내 진로교육의 요소를 면밀히 살펴 이를 추출하고 직업체험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직업체험 활동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진로체험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진로탐색 역량 강화, 직업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진로검사 및 상담 - 진로체험(기초) - 체험 후수활동(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진로/진학상담 등) - 진로체험(심화, 직무체험 등) - 취업활동」으로 연계되는 패키지 프로그램 필요
- 진로교육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앙단위(교육부 혹은 교육청에서 발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서 개발)에서 개발된 진로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확산하고 수업자료(진로검사도구, 체험도구 및 교재 등)를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에 배포 확대. 해당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패키지화하여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장애 학생 등 학생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필요
- 지원체계는 학교 안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 모두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배정, 시설 점검, 인력 배정 및 협조체계 조성, 안전문제 대비 등 항목을 구체

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진로체험 활동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해야 함. 이를 위해 각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안전 매뉴얼을 학교에 보급하고,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지도 점검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체험 인프라에 접근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규모별, 운영방법별 등 다양하게 분류된 여러 종류의 활용 매뉴얼이 필요
- 자치단체 진로업무 담당자를 위한 진로교육 관련 콘텐츠 제공 및 자치단체 진로교육 우수사례의 전국단위 공유

○ 진로교육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필요

- 현재 청소년과 대학생/일반인용으로 대상별로 구분되어 서비스되거나 교육부 주도 혹은 고용노동부 주도로 운영되는 각종 진로 및 직업정보,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정보 사이트와 대국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서비스로 구축하고 학생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차원에서 자신만의 직업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현재 진로관련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CareerNet 진로정보와 더불어 꿈길(www.ggoomgil.go.kr)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진로체험 정보, 그리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연계된 보다 정교화된 직무역량진단 및 관련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매칭, 이를 현재 워크넷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구인·구직정보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 할 필요 있음
- 이에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역량진단 및 진로탐색』 - 『진로·심리·학습상담』 - 『직업정보』 - 『진로체험』 - 『직업교육/훈련』 - 『개별 진로/직업 포트폴리오 완성』 - 『채용정보 및 구직 지원서비스』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합적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4)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

○ 국가 수준의 생애 전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역 진로교육센터간의 연계

- 정부, 지자체(광역, 기초), 교육(지원)청, 고용지청, 진로관련 기관(진로교육원, 센터, 체험처 포함), 기업 및 연구소, 학교, 대학, 마을교육공동체, 지역특화 진로교육 컨소시엄 등을 포괄하여 국가 단위, 지역 단위의 진로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각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시스템

이 바로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임.

- 이에 국가 수준의 생애 전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지역 진로교육센터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진로교육 현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다학제 간 진로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논의 필요

주제 토론 3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방안'에 대한 고찰

최경식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방안’에 대한 고찰

최 경 식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1. 개요

첨단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시대의 변화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얼마 전 제5세대(5G) 이동통신의 상용화는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속도 경쟁을 불붙이고 있으며, 기존 데이터 처리 기술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센터가 다양한 서비스 수요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의 구조적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구글 등이 두드러지게 참여하고 있다(황혜인, 2018).

한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개념에서 기초한 공공분야의 혁신과 함께 교육분야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김신애 등, 2018)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IT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김진호 등, 2017)하고 있듯이,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대적 변화 물결은 결국 교육 환경 및 정책의 변화를 촉발시키게 된다. 학교 교육 중심의 7~8시간의 한정된 학습시간은 유무선 통신 장치와 정보처리 단말 시스템을 통해 시간적 제한을 넘어섰고, 학교와 가정이라는 일부 공간에서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 정보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공간의 확장까지 교육 환경은 이미 달라졌다.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면대면 진로상담, 학교 또는 교실 단위의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진로교육정책에 대한 참여주체

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제6차 교육과정(1992)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직업’을 보통교과의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 신설한 이후, 제7차 교육과정(1997)에서는 중학교 교양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을 신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진로교육이 안착되었다. 진로교육 역시 최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진로교육정보망(커리어넷, www.career.go.kr) 기반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콘텐츠를 이용자가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앞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미래의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커리어넷 클라우드 서비스망 구축 사업도 이미 '17년부터 진행 중이다.

교육부(2015)는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는 것’으로 두고 있듯이 현재 진로교육 변화는 결국 진로교육이 지속성을 확보하며 질적·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종국에는 최종 수혜자인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삶과 일, 그리고 삶의 조화 속에서 생활하며 행복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진로교육의 지속성이 확보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진로교육 인프라’로 보아야 한다. 이제는 진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의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의 교육혁신에 대한 방향성과 진로교육 인프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동향 및 경향성 파악함으로써 진로교육 인프라가 현장에서의 진로교육 안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진로교육의 인프라의 특성상 광범위한 범주와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앞서 발제된 문승태(2019)의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한정하여 다루기로 하겠다.

2. 교육혁신과 진로교육의 방향

현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구정철학을 토대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을 근본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혁신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대학 경쟁력 제고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주축으로 지나친 경쟁 위주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공고히 만들어 가고 있다(고영중, 2017).

한편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방향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쌍방향식 온라인수업을 도입하며 대학에서 블록형 또는 집중형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토론·협력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적용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교 및 교사에게 큰 폭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평가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교원은 지식전달자보다 학습안내자, 사고촉진자, 경험구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도 지원한다. 셋째,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집중한다.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지능형 학습플랫폼, 교육콘텐츠의 오피마켓 등도 구축해 나간다. 또한 최첨단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고,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학교 운영체제 등을 총체적으로 혁신시켜나갈 수 있도록 '첨단 미래학교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넷째, 지능정보기술 분야 우수 인력 양성, 모든 학교급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다섯째, 인간본연의 가치 구현과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인성·예술 및 체육 교육의 활성화시켜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문해교육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6). 교육부에서 숙고의 과정을 거쳐 제안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한 중장기 교육방향 역시 교육과정, 각종 교육 인프라 등이 중국에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학생(학습자)가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과도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방향성 자체가 갖는 의미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방향성을 진로교육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IMD 세계경쟁력 평가 및 WEF 세계경쟁력 평가 보고서가 우리 교육에 던지는 몇 가지 숙제 중 하나로 학력 저하 논란을 불식하고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장덕호, 2018)으로 이에 대하여 정책적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학생 삶의 다양한 국면에 개입하는 통합적 지원정책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 양극화의 동인은 학습기회의 결손이라는 단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문화자본의 확충, 지역사회 학습 분위기, 자아탐색 기회의 확충 등 다차원 문제로 해석해야 그리고 교육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도 살펴보아야 한다. 소외계층의 성인들은 생업중사,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자기개발 및 평생교육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유층의 성인들의 경우 여유자원을 자기개발 및 평생교육 참여에 투자할 여유와 의지가 있기에 이러한 성인 간 교육격차 역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성인들의 교육격차는 해당 세대뿐만 아

나라 후속세대에 일정 부분 세습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육기회 소외의 상대적 사각지대인 성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조금주, 2007, 재인용). 이는 진로교육이 학생(학습자)의 전 생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로 실제 진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중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한정짓기보다 성인들의 진로교육 인프라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혁신의 또 다른 방향의 하나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교육정책 수립도 제안되고 있다. 교육부, 교육관련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등의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BPR/ISP 사업 추진과 함께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나 관련 기관(부서)의 설립, 위탁 등의 운영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수·학습 패턴 분석 모델 개발, 교육포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관련 이슈 분석 서비스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영어학습채팅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도 제안하고 있다(김진호 외, 2017). 이와 관련하여 영국 팔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영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경우 연간 160억에서 330억 파운드의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김현곤, 2013).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업중단 학생 대응 모델 연구(정제영 외, 2018)’는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방안과는 주제의 차이는 있으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자존감, 자긍심 등을 고취시키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진로교육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

1)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및 접근방향

문승태(2019)는 인지적 유연성(정재승, 2018, 재인용), 인적·물적 자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 협력과 질 높은 경험 및 체험중심의 비교과 활동(송병국, 2018, 재인용), 심미적 감수성을 갖춘 정서교육 및 평생교육적 차원의 진로교육의 필요성(문승태, 2017, 재인용) 등을 강조하며 모든 교육의 출발점으로서의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진로교육 인프라는 정윤경(2014)의 연구를 인용하여 ‘법·제도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및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어나가기 위해 인재상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와 가치 지향성 행동목표, 협업능력을 갖추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길러가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로교육의 대상을 유아

에서 노인까지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진로적응성 및 진로탄력성의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의 성격, 내용, 방법 등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현재 진로교육 인프라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현재 진로교육 인프라는 초·중·고 중심으로만 구축된 것은 아닌가?

둘째, 진로교육 인프라 관련 조사는 공급자의 입장인 정부중심으로 설계된 것은 아닌가?

셋째,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진로진학상담교사 질적 논쟁 등 진로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넷째,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진로 정보 및 콘텐츠 등이 대상별로 제공되고 있는지와 수요에 대한 적시에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섯째, 진로교육 인프라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섯째, 진로교육 인프라가 진로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2)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확장

유아에서 성인을 포함하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접근하고 있다. 유아교육단계에서는 누리과정에서의 진로인식 함양을, 초·중등교육단계에서는 교과교육으로서의 진로교육을, 고등교육을 포함한 성인 단계에서는 진로교육의 체계화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급별 체계성과 연속성, 미니자유학기제(초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초·중등) 등 학교급간 연계성을 위한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일터 전환에 있어서도 대상별·영역별 다양성에 맞춘 역량, 기술, 인간관계, 자아개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진로'라는 의미에서 '연결'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진(進)'이 '나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출발점과 도착점에 대한 정의가 없이는 해석이 어렵다. 개인의 생애단계에서 보면 어디서부터가 출발점이고 어디까지가 도착점인지 정의하기 애매하다. 출발점과 도착점은 한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에 있어서 생애 전 단계에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로(路)'는 '길'을 의미한다. '길'은 과정, 방법, 다양성 등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결국 개인별 특성, 발달단계, 소질과 적성 등에 따라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기보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진로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진로교육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결국 진로교육은 개인의 발달단계나 학교급별로 단절된 형태가 아니라 상호 연계성을 갖고 유아에서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해 교육에서 발표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18.11.16.)"에서도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방향을 제시(교육부, 2018)하고 있다.

한편, 진로교육 인프라의 혁신에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학교·시·도교육청·지역 간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진로교육 협력체제는 앞서 제시되었던 전 생애단계 진로교육 확산이 지속성을 갖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일 수 있다. 학교나 교사 단위에서 추진되는 진로교육의 한계는 교육과정 운영적 측면, 예산적 측면, 인력소요적 측면 등에서 많은 한계점에 대하여 협력체제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부는 전국 220여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실무협의회('17.), 공공·민간 업무협약(현대자동차, 인텔 등 112개 기관과의 업무협약('18.12월 기준), 지역사회 연계 마을교육공동체('18.) 등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가며 지속가능하고 공고한 진로교육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진로상담 지원체제 강화 및 진로관계자 역량 신장

진로교육의 출발점의 하나이자 환원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진로상담이다. 학생 또는 진로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 행복, 직업, 여가, 전공 등 다양한 분야나 관점에서의 고민을 풀어내어 진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중국에는 진로실현을 통해 개인의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은 현장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등의 사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진로상담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체제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가가 필요하게 된다.

진로상담을 포함한 상담이란 기본적으로 내담자, 상담자, 상호작용이라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을 희망하고 자신의 진로설계를 위한 학생 또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미 내담자에 대한 기본요소는 충족되고 있다. 이들이 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담환경이 요구되어지는데,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우선 시간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상의 일과시간(9 to 6)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다. 하루 24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정보매체의 저장을 통해 그 이상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내담자가 원하는 시점부터라면 언제든지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 공간의 관점에서는 학교 또는 물리적인 특정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미 컴퓨터,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가 온라인 공간으로의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결국 현재의 정보통신기술과 향후 발전 가능한 방향의 기술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진로상담 지원종합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진로상담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자 상황이 된다. 다음은 상담자이다. 학교, 학생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대부분 담임교사나 진로전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교사의 진로상담 전문성은 어떻게 강화해나가야 할 것인가, 교사와의 상담이후 더욱 깊이 있는 진로상담요구가 있거나 학생 이외의 진로상

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대 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가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현직교사들은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역량 직무연수를 지원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 양성을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을 신설하고 교사양성 및 배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자격을 가진 교사 중 진로전담교사를 양성 배치하도록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고시(대통령령 제29016호, '18.7.3.)하였다. 초등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위해 초등 진로전담교사 연수를 2016년부터 매년 2,000명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초·중등 담임교사 대상의 직무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원격연수('16.), 교원의 진로코칭 역량 강화 과정('18.), 다양한 진로교육의 사례('19.) 등 원격연수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원 중이다. 한편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원의 진로교육 인식제고를 위하여 학교관리자, 교무업무 담당자 직무연수도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발제된 내용과 같이 '단위학교·시·도교육청-지역 진로상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진로상담 서비스 기반 마련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역 진로상담 전문기관'의 정체성과 구성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요구된다.

학교 중심의 진로관계자, 즉 진로전담교사에 대한 역량 신장이외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년원학교 등의 관계자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역량도 중요한 부분이다.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8.11.16.)”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다문화,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배려 대상별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적 연수’를 2019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별개로 문승태(2019)는 진로전담교사 배치 확대와 진로기반 교육과정 확산을 진로교육 인프라 혁신의 일환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시기에 상담을 제공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서 충분한 인적 인프라와 교육과정이라는 제도적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학교교육이 진로교육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4) (가칭)국가진로정보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 마련

교육부는 현재 진로정보망(커리어넷: www.career.go.kr),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www.ggoomgil.co.kr), 원격영상진로멘토링(mentoring.career.go.kr), 기업가정신체험프로그램(엠펙: yeep.kr) 등 다양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진로정보망을

중심으로 회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중이다. 여기서 나아가 문승태(2019)는 진로관련 통계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정보망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가칭)국가진로정보망’으로의 통합·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서비스중인 웹사이트와 앱 등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인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용자는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은 계획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는가 등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진단과 진단 결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칭)국가진로정보망’으로의 통합·확대에 대한 논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용자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정부나 연구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한 예방 및 후속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망 운영 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5) 진로개발역량 및 학습자 참여주도형 서비스 강화

문승태(2019)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진로교육 인프라 혁신을 위해 진로개발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서비스와 학습자 참여주도형 진로교육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체계에 대한 수정·보완과 「진로교육법」 제13조에 근거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체계 확충 및 대학교육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서 논의한 평생교육 차원의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특히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체계’는 교육부가 2012년 마련하고 2016년 한 번 개정하여 안내하였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보완 및 개정을 통해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미래사회 또는 지능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예측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관련 전문가나 여러 정책연구기관들과의 협의나 공동 정책연구 등이 요구된다. 이는 향후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될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체계 확충 및 대학교육 연계, 학습자 참여주도형 진로교육 서비스의 강화는 학제, 교육과정 등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교수학습방법의 미시적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학교구성원의 선택여부에 결정되는 만큼 학교구성원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지원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교육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단계적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예정(교육부, 2019)인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20년 발표 예정)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성장 중심으로 진로개척역량을 함양하고 교사의 수업·평가의 자율성 강

화 및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등을 위해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정책(교육부, 2017)이다.

6) 제도적·법적 인프라 확충

‘(가칭)국가진로교육원’의 개설 방안은 진로설계와 직업전환교육을 총괄하고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모든 국민의 체계적 진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지원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성인의 진로교육 지원은 대부분 직업과 직결되는 만큼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과 진로교육을 동일시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정치(定置)를 진로교육 지원 자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2017년 지정되어 3년차를 맞고 있는 ‘국가진로교육센터’를 통해 방향성이나 역할 및 위상, 운영방법 등에 대한 진단과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가칭)국가진로교육원’의 설치부터 운영방향, 사회적 기여도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일부의 필요성 제기에 반응하기보다 국민 개개인이나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 기관이나 기구 등의 수요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긴 안목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법적 인프라에 있어서는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 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시·도교육청 조례를 아울러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수정·보완해야 한다. 이외에도 문승태(2019)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초·중등 진로직업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의 교사의 노력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진출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학생 개인별 심도 있는 진로탐색과 준비, 실천 역량 함양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산업 및 직업세계에 따라 정체감을 형성하고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이 보완되어야 한다. 지식습득과 취업 지원과 병행하여 입직 후 학습이나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생애 진로개발 관점에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와 직업에 대하여 자신의 진로정체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로개발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정윤경, 2018).

진로교육은 한 순간의 결정이나 일부의 과정만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발달단계별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 현재의 역량과 개발하고자 하는 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문승태(2019)와 많은 연구자가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적 측면에서의 진로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교육기관과 지자체, 민간 등의 협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진로교육은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 관계자 등의 역량은 이러한 지속성과 실효성 기반 위에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습자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실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원 및 서비스까지 이루어진다면 진로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혁신이란 무엇이든 새롭게 해야 한다거나 기존의 것을 모두 뒤바꾸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다. 현재의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더욱 온전하게 작동하고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로교육이라는 현재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진단하고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은 찾아서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이나 평생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최적의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혁신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영중(2017).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교육개발 웹진(2017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pp.1-5.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p.3.
-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p.10.
- 교육부(2015). 2015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p.1.
- 교육부(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 교육부(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 교육부(2018).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18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교육부(2019).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9.2.12.).
- 국민일보(2018.2.25.), 송병국, 청소년 진로교육 내용 형식 다 바꾸자
- 김신애, 방준성, 권희경(2018). 교육 분야 「국가디지털전환」 기획의 방향성 탐색, 한국교육, 45(4), 한국교육개발원, pp.173-200.
- 김진호, 손대형, 이기준, 신혜숙, 이수안(2017).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교육정봉·통계기

반 정책 추진방안,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정책 2017-위탁-5, 교육부.

김현곤(2013). 정보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데이터기반 정보화, HIRA 정책동향, 7(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p.20-32.

머니투데이(2017.5.10.), 문승태, '진로교육'...교육개혁의 출발점.

문승태(2019). 미래형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제48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진로교육학회.

정덕호(2018). 최근 교육정책 환경 분석과 향후 변화 전망,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지원 연구(이슈페이퍼), 2018-02, 한국교육개발원.

정재승(2018). 『열두발자국』, 서울: 어크로스, p.312.

정윤경(201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중등 진로 직업교육 방향, 서울교육(webzine-serii.re.kr), 231(여름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조금주(2007).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시민인문학 15권,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황혜인(2018). 글로벌 데이터센터 변화 추세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30(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8-16.

제1회 진로교육 현황조사 활용 우수논문 공모전



■ 공모주제

- 진로교육 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자유주제
 - ※ 진로교육 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진로교육 실태 분석, 진로교육 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제안 등

■ 참가자격

- 학술 전문가: 대학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기관 연구자
- 대학원생: 석·박사과정 재학생
-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 ※ 3분야 모두 개인 혹은 단체(최대 3명)로 참여 가능

■ 시상내역

구 분	시상 편수	포상내용
교육부장관상	3	상금 각 50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6	상금 각 20만원

- ※ 응모 수준 등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 학술지나 공모전 등에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하며, 표절 및 모방 시 수상자격이 박탈됨

■ 공모전 일정

- 연구계획서 공모: 2019. 4. 23. ~ 6. 10.
- 논문 접수: 2019. 6. 11. ~ 9. 26.
- 심사결과 발표: 2019. 11월 중
- 우수논문 시상: 2019. 12. 18.
- ※ 전체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이메일(ke1151@krivet.re.kr) 제출
 - ※ 관련 양식은 '커리어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career.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044-415-3861 | ke1151@krivet.re.kr



제72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진로교육의 발전 방안

2019. 6. 28. (금) 14:00~16:30

엘타워 8층 엘가든홀

K R I V E 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프로그램

~14:00 등록

14:00~14:10 국민의례

인사말

나영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14:10~15:10 주제발표

발표 1 교실혁명과 진로교육

(전통적 학교 교수학습방법을 뛰어넘는 진로체험·진로지도
(상담)의 전달 방식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손은영 | 충남대학교 교수(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장)

발표 2 공교육혁신과 진로교육

(공교육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 진로교육의 역할과 기대성과)

양정호 | 성균관대학교 교수

15:10~15:20 휴식

15:20~16:20 종합토론

좌장 이지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토론 송은주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강연홍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박정근 | 진로전담교사협의회 회장

한상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장

장혜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체험학습센터장

이강은 |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이슈팀장

16:20~16:30 질의응답

(주)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대학생을 위한
진로코칭**
-전략과 실제-

현성문 외 공저

- 사륙배판
- 232면
- 14,000원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윤명희 외 공저

- 사륙배판변형
- 432면
- 18,000원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임경희 외 공저

- 크라운판
- 416면
- 18,000원



**대학생
인생설계 워크북**
-나를 향해 떠나는 여행-

이의용 저

- 국배판
- 256면
- 11,000원



2판
**오늘 나의 모습은
내일 나의 예고편
스무살 나의 비전**

이의용 저

- 사륙배판변형
- 464면
- 16,000원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통한
대학생의 진로 설계**

송현영 외 공저

- 크라운판
- 216면
- 9,000원



**내 생애
커리어 앵커를 찾아서**

Edgar H. Schein 저
박수홍 역

- 크라운판
- 200면
- 15,000원



진로취업 멘토링

주석진 외 공저

- 크라운판
- 240면
- 15,000원



한국진로교육학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07호

e-mail : careeredu1@hanmail.net

home-page : <http://www.careeredu.net>

